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 설교 피드백 받는다

“건강한 피드백 문화 거부하면 한국교회 성장 더딜지도”

담임목사 4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평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올해 초 한국교회 담임목사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등의 주요 결과를 14일 소개했다.

◆“정기적 설교 평가 받는다” 24% 누구한테? ‘배우자/가족’이 75%

이에 따르면 설교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는 목회자의 비율은 담임목사들 중 24%였다. 평가를 받는다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를 받는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누구에게 받는지 물은 결과, ‘배우자/가족’이 75%로 가장 많았고, ‘교인’ 11%, ‘교회 밖 동료/선후배/지인’ 11% 등의 순이었다. ‘배우자/가족’에

게 설교 평가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다.

연구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설교 피드백 받는 비중이 가족에게 더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9세 이하 목회자의 경우 가족 이외로부터 설교 피드백 받는 비중이 60세 이상 목회자보다 크게 높았다”고 했다.

◆“목회 코칭 경험 있다” 47% “목회 자문 평신도 있다” 12%

또 ‘목회 코칭을 받은 적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항목에 47%의 목회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 자문을 해주는 평신도가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1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후자 모두에서 49세 이하의 긍정 응답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50대와 60세 이상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연구소는 “목회 코칭 경험이나 자문 평신도 유무 모두 목회자의 연령대가 낮을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3.06.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 목회데이터연구소

수록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젊은 목회자일수록 목회에 대한 피드백에 좀 더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목회 피드백과 교회 성장의 연관성?

목회자들에게 향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물은 결과,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71%였다. 그런데 ①정기적으로 설교 피드백을 받거나 ②목회 코칭 경험이 있거나 ③목회 자문을 받는 평

신도 전문가가 있다는 목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목회자보다 10%p 이상 교인 수 증가를 더 높게 전망했다.

“향후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구체적인 비율은 ①배우자/가족에게 피드백을 받는 경우 81%, 가족 이외에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 86%,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경우 67% ②목회 코칭이 경험 있는 경우 77%, 없는 경우 68% ③목회 자문을 받는 평신도 전문가가 있는 경우 80%, 없

는 경우 70%였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목회 피드백과 교회 성장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연구소가 전국 개신교인 2천명을 상대로 지난 5월에 한 조사에서 교회 내 수평적인 문화가 있다는 비율은 31%(매우 그렇다),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은 29%(매우 그렇다)였다.

이에 연구소는 “상당수의 성도는 아직 교회의 수평적 문화 형성과 사역 피드백 측면에 있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열린 자세로 피드백 받는 것 두려워 말아야”

연구소는 “피드백은 제공자와 수용자의 상호 이해와 교감,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한데,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교회가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려면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설교 피드백같이 정성적인 평가인 경우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한 목회 선배나 전문가 수준의 평신도에게 피드백을 받는 등 본인만의 피드백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피드백이 순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드백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이라는 전제가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며 “또한 문제의 원인과 대상을 ‘사람’이 아닌 ‘행위’에 맞춰 불편한 감정 소모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결과 개선을 위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피드백해야 한다”며 “두려움과 불편이 우려되어 건강한 피드백 문화를 거부한다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그만큼 더디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진정한 부흥, 먼저는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 있어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예배,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열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예배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바울성전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김호성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교육연구원 원장)의 대표기도, 베데스다찬양단의 ‘문들아 머리들라’ 찬양, 이영훈 목사의 설교, 통성 기도, 이동훈 목사(재단법인 사무국장)의 헌금기도,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진정한 부흥(행 2:37-3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부흥의 놀라운 능력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먼저는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교단이 오는 2034년까지 세계 교단과 함께 100만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나아간다”며 “향후 10년 동안 많은 선교회를 세우고, 3백만 성도의 시대를 향해 달려 나간다.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여 삼창을 부르

짚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다음으로 축사 순서가 진행됐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더그 클레이 목사(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감사하다. 70주년을 축하드리며 기하성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부흥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이철 감독회장(기감)은 “기하성은 한국전쟁 직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끈 교단”이라며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범이 되었다. 지난 70년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70년에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한국교회의 모범이자 시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전한 강한식 목사(기하성 광화문 총회장)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하며 주장해 왔다”며 “1953년 4월 8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태동하면서 향후 70년을 바라보며, 우

리가 믿거름이 되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순복음 오순절 교단의 역사를 이룩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한다. 7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이 행사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다시 한 번 이루어 갈 줄 믿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축사를 전한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1953년 전후에 우리 국민들이 낙망해 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일으켜 주었다”며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을 통해 국력이 높아지고, 열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며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다음 마지막 축사를 전한 김익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창립 70주년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53년 이 땅이 전쟁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며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붙였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교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예배가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열렸다.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2034년까지 세계 교단과 함께 100만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동 기자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같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로 기하성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것과 세계적인 대부흥사故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총연

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 대표회장 신실한 종들과 평신도 인 물들을 세워주시심을 감사드린다”며 “기하성 교회들이 다시 한 번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붙여서 뜨겁게 부흥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배는 염진용 목사(기하성 총무)의 광고, 주기도문, 이영훈 목사의 축도 순서로 모두 마쳤다. 장지동 기자

추수감사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대표회장 송태섭



사무총장 최귀수



가자지구 기자들의 '하마스 연루설'... 美주요 매체들 '부인'

CNN과 다수의 뉴스 매체가 최근 언론 감시단이 제기한 하마스와 공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해당 폭로는 하마스가 10월 7일 가자지구 국경을 침범할 당시 사진기자들의 존재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친이스라엘 미디어 감시 단체인 '어니스트 리포팅'(Honest Reporting)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서 CNN, AP통신,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가자지구의 사진기자들이 공격 전, 이른 아침에 국경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감시단은 특히 AP 통신과 CNN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사진기자 하산 에슬라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언론인으로는 유세프 마수드, 알리 마흐무드, 하넴 알리 등이 있다.

어니스트 리포팅은 현재 삭제된 엑스(X·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 탱크 앞에서 있는 에슬라야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다. 다른 게시물에는 "가자지구 정착촌 내부에서 생방송"이란 문구와 함께 에슬라야가 10월 7일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 야하야 신와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9일 해당 언론사들에 답변을 요구하며, 어니스트 리포팅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의 대변인은 9일 CP의 문의와 관련해, 하마스의 침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공격 당일 기자들을 테러 단체와 동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변인은 "로이터는 7일 아침 국경에 있던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2명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했고, 이들은 사전에 (하마스)와 관련이 없었다"며 "공개한 사진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근교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난입한 하마스 무장 세력이 총을 들고 있다. ©AP뉴스 유튜브 캡처

남부 전역에 로켓을 발사한 지 2시간 뒤, 이스라엘이 무장괴한들이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한 지 45분 이상 지난 시점에 찍은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 "로이터 직원 기자들은 어니스트 리포팅이 보도한 기사에 언급된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의 대변인은 9일 성명에서 사진기자의 공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가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에슬라야 기자와 가자지구 의 다른 국제 언론사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AP는 전 세계 프리랜서들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다. 프리랜서 사진을 받을 때, 해당 사진이 의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우리의 역할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생하는 뉴스 속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심지어 끔찍하고 대량 사상자를 발생시킬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같은 날 CNN도 에슬라야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히며, 한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CNN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대해 몰랐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변인은 하마스가 침공할 당시 에슬라야가 CNN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CP의 문의에 대해 해당 보도에 언급된 기자 중 한 명인 유세프가 공격 당일 해당 매체에서 일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과거에 유세프가 해당 언론사를 위해 "중요한 업적을 이룬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어니스트 리포팅의 암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유세프)의 작업물을 검토한 결과, 주요 뉴스 사건이 발생할 때 사진기자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자 비극의 현장을 기록 중이었다"고 했다.

어니스트 리포팅은 10일 엑스에 주류 언론사들이 자신이 고용한 프리랜서 기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시단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재차 묻는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으며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왜 이 언론사들은 비껴가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유진 김 기자

네팔 지진으로 150여 명 사망... 교회 20곳 붕괴돼

지난주 남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6.4의 파괴적 지진으로 인해 네팔의 수십 개 교회가 붕괴하고,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기독교 단체들이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 자정 직전에 발생한 지진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자자르코트와 웨스트 루룸 지구를 강타했다. 외신은 인도

인근의 델리를 비롯한 먼 도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국제선교단체인 'GFA 월드(GFA World)'와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는 네팔의 종교 시

설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GFA 월드 설립자인 K.P. 요한나는 성명에서 지진 피해 지역의 일부 협력 교회들이 파괴되었으며, 한 마을에서만 교회 신자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GFA 월드는 구호 및 구조 작업을 위해 현지 교회 신자들을 동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이재민들에게 식량, 담요, 텐트와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큰 피해를 입은 마을들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외딴곳에 위치해 있어, 교회 사역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GFA 월드는 피해 지역 안에서 진흙과 벽돌로 지어진 단순 주택 중 90%가 붕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바나바스 에이드는 지진 이후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18000채 이상의 주택과 최소 20개의 교회가 붕괴했다. 현지 조력자의 말을 인용했다.

네팔 서부의 프로젝트 조력자인 탄가씨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2023년 11월 3일 네팔 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역 교회 신자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GFA World

환경이 주택 붕괴로 인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현지 목회자가 지진으로 그의 딸과 손주 4명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구호 노력은 교회 재건까지 이어지지 않아 현지 기독교계는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자자르코트의 지역 병원은 부상자들이 가득 차 있어, 당국은 일부 부상자들을 카트만두로 이송해 치료 중이다.

지진 생존자인 게타쿠마리 비스타는 자신의 참혹한 경험을 BBC에 공유했다. 그녀의 가족은 무너진 집의 잔해에 파묻

혔으며, 큰 딸은 구조되었지만 작은 딸은 목숨을 잃었다.

BBC에 따르면, 지진은 산사태로 이어져 많은 도로가 막혀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네팔에서는 11월 3일 첫 지진 이후, 1시간 이내에 세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었다.

2015년 네팔은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9000명이 사망하고 22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지진은 네팔의 기반 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적십자사 적신원사 연맹(IFRC)은 주로 서부 및 중부 지역에서 주택 80만 채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했다. 유진 김 기자

90세도 만든다... 캐나다 교회, '위안 주는 곰인형' 제작·기부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수백 개의 수제 곰 인형을 만들어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는 단체가 있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케임브리지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웨스트사이드장로교회에 여성 7-12명이 모여 '위안을 주는 곰 인형(Teddies of Comfort)'을 만들고 있다.

단체의 공동 기획자인 재닛 맥케나는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그는 단체의 일원 중 교회 신도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웨스티(Westie)'라는 이름의 위안을 주는 곰 인형을 만들어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소방서, 세인트앤드루스스테라스 장기요양원, 스티어링 이즈 장기요양원, 케임브리지메모리얼병원 등에 기부해 왔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곰 인형은 250개 이상이고, 약 150개가 기부됐다.

그는 "케임브리지메모리얼병원에서 웨스티를 매우 좋아했다"며 "곰 인형들은 당뇨병을 진단받은 어린이들, 특별 보육 시설 등 병원 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곰 인형 만들기 아이디어는 온타리오주 브랜트퍼드에 있는 글렌브라이어교회



케임브리지메모리얼병원에 기부된 '위안을 주는 곰 인형'이 바구니에 담긴 모습. ©케임브리지메모리얼병원 재단 SNS

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곰 인형(Teddies for Trauma)'이라는 유사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이다.

맥케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 우리 프로그램을 위안을 주는 곰 인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전반의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뜨개질하지 않는 교인들은 물품과 실을 사기 위한 돈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충전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실을 측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맥케나는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은 90살이고 그는 계속 곰 인형을 만들기 원한

다"며 "그는 정말 많은 곰 인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교회의 브라이언 정 목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이 모임을 보면 교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는 특히 위안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교회 신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간다. 정 목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갈 때 항상 웨스티를 가져간다"며 "그들에게 웨스티를 주면 매우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웨스티는 단순한 곰 인형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정성이 담겨 있고 큰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은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02-2021-1111 | 02-2021-1111 | 02-2021-1111 | 02-2021-1111

Lead by 신한카드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무고한 시민들 살상, 지탄받아야”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위한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주도하는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로 이번 가자지구 전쟁을 촉발시켰다”며 하마스에 대해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무장 투쟁단체”라고 했다.

이들은 “하마스의 강령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들의 강령에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책이 지하드(성전, jihad)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하마스의 비윤리적 기습 공격과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부도덕한

살상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전쟁은 군인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하마스는 전쟁 규칙을 어기고 기습공격을 하면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음악제를 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공격하여 무차별로 죽이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그들의 방어를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하마스의 성전 일변도의 강경책 속에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력충돌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 키푸르 전쟁을 이끈 이스라엘 제4대 총리 골다 메이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인종 학살이 자행될 것이다’면서 ‘우리를 유대인이 아랍인들과

싸우는 비밀 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더라는 말을 남겼다”며 “대한민국을 방문한 바 있는 전 이스라엘 르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강을 건너는 ‘전갈과 거북이’ 우화로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은 불가능함을 일갈했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국경도 없는 끔찍한 전염병인 테러리즘을 포기해야만 중동 평화는 가능할 수 있다”며 “전쟁은 더러운 전쟁이든 국경 없는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 후 세계 각처로 흩어져 나라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유대인족은 2,000년만에 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까이 목숨을 바친다. 이번 전투에도 30만명 이상의 예비군들이 세계 각처에서 자원 동원, 참전하여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저방 좌파들은 ‘약자에 대한 옹호’라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를 바탕으로 하마스 공격을 옹호한다”며 “그러

나 팔레스타인 속에 숨어 있는 하마스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하마스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민간인은 분명한 약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의 무장투쟁과 이스라엘의 반격 속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난민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간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미국과 유럽, 아랍 세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해법으로 하마스의 강경세력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나면, 유엔 평화유지군이든, 아랍의 평화유지군이든 평화유지군이 주둔하여 평화를 유지시키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삶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하마스같은 강경무장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아

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 같이 얽혀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중동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독교는 이 전쟁의 종식과 중동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 야 한다”며 “한국기독교는 이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한다.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평화(살롬)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악의 세력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깨어 경성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든 평화 이상주의에 빠져 힘의 우위에 의한 안보를 등한시 여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하마스와 아랍국가들의 집단적 적대와 가짜 뉴스의 프로파간다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도 인권의 차원에서 지켜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전개될 전쟁 패턴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무차별 대량 살상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같은 것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북한군 동태에 대한 철저한 안보 점검을 해야 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은 우리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한국사회와 교회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 점검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 생명 낳고 길러낸다는 것, 어떤 일보다 귀한 일”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제1회 2030 라이프워커 생명사랑 걷기대회’ 진행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지난 11일, 서울 양화 한강공원에서 ‘제1회 2030 라이프워커 생명사랑 걷기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가 주최했고, 학회와 함께 스브가 주관했으며, 사단법인 파주전사가 협력했다.

이 걷기대회는 낙태의 위험에 있는 태아와 위기임신 여성들의 아픔과 고민에 공감하며 함께 걷기 위해 마련됐다. 양화한강공원에 모여 총 4km를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고 한다.

주최 측은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유학생 등 다양한 2030 세대가 함께 모여 생명을 위해 걸었다”며 “이번 걷기대회는 한국에서 2030 대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태아와 산모를 위해 걷는 첫 생명사랑 걷기대회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는 개회식 인사말에서 “걷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생일은 왜 축하받아야 마땅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인간의 탄생은 축복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모든 인간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양심인 것 같다”며 “어렵게 태어난 생명이라도 앞으로는 행복하

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라이프워커 생명사랑 걷기대회의 의미는 여기 모인 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것,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스브의 안유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임신은 누구에게는 축복과 감사로 다가오지만, 누구에게는 걱정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낳고 길러낸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치있고 귀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요즘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태된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만, 이제는 여성이 자

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냈으면 좋겠다”며 “걷기대회를 통해 우리 2030세대가 생명을 지켜내는 세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1살 된 자녀를 데리고 참여한 신혼부부는 “저희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 캠페인을 알게 되었다.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하고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아기가 생겨서 좀 고민이 되었는데, 낳고 보니 생명이 주는 힘이 대단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작은 발걸음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의미 함께 전달하고 싶어서 걷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희 자녀도 자라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는 “내년 제2회 라이프워커 행사는 온세대를 대상으로 한강 마라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中업체의 韓 언론사 위장 사이트들... 여론 왜곡 우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중국 업체의 국내 영향력 확대가 포착됐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최근 냈다.

언론회는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중국 언론홍보업체인 Haimai(하이마이)사, Haixun(하이쑤)사 등은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 명 및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했고,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재했으며,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를 활용하고,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웹사이트가 무려 38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여론을 호도하려는 외부 세력의 공작(工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들은 한국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제작해 중국 등 해외 서버에서 운영하고 정상 언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 한국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정상적인 한국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하려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한국 내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 동안 국내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특정세력이 있다는 것은 세간에 많이 떠돌았었는데, 이러한 것들로 확실

히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들의 활동이 마치 우리 언론사가 기사를 쓴 것처럼 하여 그 기사들이 번져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언론을 사칭한 보도가 왜곡되어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의도한 악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어 염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밝혀 우리 국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게 해야 한다”며 “외부의 이런 행위는 결국 우리나라의 여론을 혼란하게 하여 심지어 내정 간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사들의 중보기도회 열려

18일 오픈아이즈센터에서

기독교사모임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길 원하는 예비/현직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모임으로, 매달 정기적인 교사들의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기도회에서는 각 교사들의 나눔을 통

해,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로서 서로를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진 기자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

송태섭 원로 목사

수원경원교회 박창열 담임 목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7번길 36-11 Tel. 031-212-6929

미국인 과반수 “인공지능, 기독교 교회에 득보다 실”

최근 설문 조사에서 미국의 대다수 기독교인은 인공지능(AI)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IBM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기계를 활용하여 인간 정신의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한다”라고 설명된다. 특히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챗봇인 챗GPT는 가장 인기 있는 AI 사례로 꼽힌다.

바나 그룹(Barna Group)과 글루(Gloo)가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는 “인공지능은 기독교

교회에 좋다”는 주장에 매우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다른 21%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27%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독교인 중 6%만이 인공지능이 기독교 교회에 좋다는 주장에 강하게 동의했으며, 16%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대다수는 “아직 AI에 익숙해지는 중”이라고 말했으며, AI를 업무나 개인 사업에 자주 사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 성인 중 29%는 AI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35%는 “궁금하다”, 21%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초 글루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AI와 교회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견해

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의 63%는 AI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28%는 AI에 대해 “약간 또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AI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목회자는 9%뿐이었다.

목회자 중 62%는 자신의 업무에 “AI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또 다른 19%는 가끔씩 AI를 사용하며, 나머지 19%는 매우 또는 매일 AI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도 교회 지도자의 54%는 교회에서 AI 사용과 전 세계적인 기술 등장과 관련된 윤리 및 도덕적 문제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바나 그룹의 부회장인 사바나 킴벌린

은 연구에 대한 설명에서 “데이터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AI의 역할과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꽤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응답자의 43%는 교회에서 AI 사용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시인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회가 AI 사용을 반대하거나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3명 중 1명 AI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열광했다. 이러한 통계는 지금이 이 주제에 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CP는 텍사스주 노스 오스틴에 위치한 한 연합감리교회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주일 예배를 시도한 사례를 지난 달에 보도했다.

성소수자(LGBT)를 지지하는 바이올렛 크라운 시티 교회(Violet Crown City Church)의 제이 쿠퍼 담임목사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의 실험적인 예배에 대해 공유했다.

쿠퍼는 “정통적이지 않은 AI 기반 예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교회가 세상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나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AI로 만들어진 예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쿠퍼는 당시 예배가 “인간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대신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영적인 깊이가 부족해 결국 실패했다”면서 “한마디로 지루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그는 챗봇이 “명백한 이단적인 것을 생성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AI는 생각하는 지각 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이 고안한 프로그래밍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이며, 프로그래밍한 대로 수행한다. 따라서 AI가 생성하는 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종 틀리고, 잘못 안내하고, 편견을 갖고, 망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진 김 기자

‘한국 IQ 1위’ 김영훈 전도사, 한국기록원 최고 기록 인증

연세대 신학과 나와 현재 한신대 M.Div. 과정에

SBS ‘영재발굴단’ 출신으로 IQ 200이 넘는 기록을 세운 김영훈 씨(33세)가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해 울초 화제가 됐던 바 있다. 한국 IQ 1위로 알려진 김 씨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런 김 씨가 최근 고지능검사 IQ 최고 점수 개인 부문 타이틀로 한국기록원(KRI) 공식 인증을 받았다. KRI 한국기록원은 김 씨의 웨슬러 지능검사 만점, 웨슬러 표준편차 고지능검사 만점 등을 인정해 웨슬러 표준편차 기준 IQ 202 또는 멘사코리아 표준편차 기준 IQ 264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김 씨는 2015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처음 이름을 알렸다. 당시 그는 세계 아이큐 3위(현재 1위)로 출연해, 무작위로 섞여있는 포커 카드 2세트(104장)를 10여 분 만에 모두 기억해내는 천재성을 보여줬다.

김 씨는 모든 공식 IQ 검사에서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웨슬러 지능검사 만점, 멘사 지능검사 만점, 각종 고지능검사 만점 등을 기록해, 기네스북

에 등재된 적 있는 메가소사이어티와 웨슬러 지능검사 기준 IQ 19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기가소사이어티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이다.

김 씨는 IQ의 영역 뿐만 아니라 기억력 및 두뇌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 세계기억력대회 및 아시아기억력대회 감독관, 세계기억력스포츠협회 고문, 마인드맵 창시자 토니부잔 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노벨 수상자 7명 등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지능협회 USIA(United Sigma Intelligence Association) 및 한국아이큐 테스트협회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현재 그는 초고지능 분야의 전문가로서, 두뇌 관련 저서 출판을 계획 중이다.

김 씨의 IQ 최고기록을 공식 인증한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인증하고 미국 세계기록 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 WRC)



김영훈 전도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한국기록원 인증서를 들고 그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교회 측 제공

등 해외 기록 인증 전문기관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기록 인증 전문기관이다.

한편, 졸업 후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목회할 생각이라는 김 씨는 과거 본지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생각에서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 당시엔 신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그러다 “신학교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김 씨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m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m

힘든 주일을 보낸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7가지

미국 사우스이스턴 신학교 대학원 학장인 척 로우리스(Chuck Lawless) 교수(사진)가 최근 뱃티스트프레스(BP)에 ‘힘든 주일을 보낸 후 기억해야 할 7가지’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로우리스는 “계시물 제목들을 보면, 내가 주일 이후에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최선의 방향은 아니므로 오늘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늘 그랬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기뻐하라!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많은 경우 그 중에서도 그분의 교회의 지도자로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중 누군가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다. (내

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부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뿐이다.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에 기뻐하라.

3.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찬양했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여러분이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뜻하신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다리고 지켜보는 동안에도 기뻐하라.

4. 교인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기도한다.

우리(목회자) 중 몇몇은 가끔 좌절감을 주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하다. 아마도 우리는 때로 교인들이 사랑과 지지를 말로 좀 더 자주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뻐하라.

5. 어제 당신이 경험한 어떤 것도 하나

님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승리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극복하신다.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있다.

6. 당신은 전 세계의 많은 신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도록 축복받았다.

당신은 신자들과 함께 모였다. 당신은 다른 이가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다. 성경은 여러분의 모국어로 쓰여져 당신의 손에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일부는 어제 여러분이 가진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지 모른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기뻐하라.

7. 이번 주에 당신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새로운 기회가 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매주 매일마다 그렇게 하라. 지금부터 기뻐하며 그 일을 시작하라!

유진 김 기자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다시 법관 기피 신청

검찰 측 “재판 지연 목적”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측이 앞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의 최종 기각에도 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 14일 정명석 측은 이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대전자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6월 20일 10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후인 7월 18일 11차 공판 진행 전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

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0형사부는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지난 7월 26일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정 씨 측은 즉각 항고를 제기해 대전자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가 심리 결과 내린 항고 기각 결정에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기각 결정에도 재판 지연을 위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명석 측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담아 1인 시위 등을 벌여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린닥터스재단, 부산 노인요양원 왕진 봉사 펼쳐

부산 북구 구포동 무지개언덕요양원 어르신 60여 명 무료 진료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온병원그룹 설립자)과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현)이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한 노인요양원에서 왕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국내 왕진봉사는 통영 비진도, 산청 흥계리, 남해 향촌마을에 이어 네 번째다.

그린닥터스재단과 온종합병원은 지난 11일 오후 부산 북구 사당로 114번길(구 포동) 무지개언덕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전체 입소 어르신 63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고, 특별히 이번 왕진봉사에서 오랜 요양원 생활로 지치기 쉬운 입소자들이 신체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렸다.

이번 봉사에는 온종합병원 윤성훈 진료원장(정형외과)과 온요양병원 이상로 부원장(가정의학과),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안과), 윤선희 원장(정근안과병원), 김지선 한의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봉사

에 동참했다. 그리고 의사뿐만 아니라, 정복선 간호이사·주연희 간호부장·주어나 감염관리팀장·윤은하·이수현·문예진·하정은 수간호사 등 온종합병원 간호부 간부들과 온요양병원 권금향 간호팀장, 온종합병원 신경계 물리치료사 2명, 장지영박지혜·김영미 그린닥터스 이사 등 모두 30여 명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았다.

입소자 중에서 최고령인 109세 할머니는 “요양원이 도시지역에 있지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데 바쁜 의사나 간호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고급 영양제도 나눠주고, 물리치료까지 해주니 너무도 고맙다”라며 봉사단체에 갖고 있던 책을 선물했다.

이외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은 대개 거동 불편해서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입소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의료진 등 봉사단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팔십대 중반 공 모 할머니는 정근 이사장에게 안과 진료를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온종합병원 봉사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요양원 노인분들께 간단한 스트레칭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받던 중 백내장이 확인돼 추후 정근안과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해주시기로 약속했다. 이날 왕진봉사에 참여한 온요양병원 이상로 부원장은 “와상환자들이 많아서 욕창이나 폐렴증세 등을 집중 확인했으나, 이와 관련한 특이한 소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전하며, 봉사단을 격려했다.

온종합병원 윤성훈 진료원장(정형외과)은 “거동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야 하는 입소 어르신들은 자칫 스트레스 등으로 삶의 활력을 잃기 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실내에서 간단한 실생활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은 “올해 5월 어린이날 통영 비진도 내외항마을(6월 5, 6일)을 시작으로, 산청군 흥계리(7월 15, 16일)·남해군 향촌마을(10월 13, 14일) 등에 이어 이번 부산 구포동에서 4번째 ‘의료오지’ 왕진봉사 활동을 가졌다”며 “2004년부터 그린닥터스는 주로 동남아 국가의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난지역

과 우크라이나 피란민 등의 긴급의료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의료오지’를 찾아나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지역 의료 문제점을 발굴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내 의료지원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지동 기자**

“담임목사로서 자긍심 회복하며 교회 갈등 해결 시작돼”

제25차 신바람목회 세미나, 보문제일교회서 열려

비전교회와함께하기운동본부(본부장 김진호 목사)가 주최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선교국이 주관한 제25차 신바람목회 세미나가 14일 서울 보문제일교회(담임 신태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엔 비전교회 목회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신태하 목사는 “제가 보문제일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전임 목사와 성도 간 갈등이 있었다.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있었다”며 “장로 등 직분자들은 목회를 단순히 설교적 기능으로만 이해했고, 나머지 교회의 행정은 성도들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목사란 2천 년 전 예수님의 사명을 이임 받은 직제 제자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목사는 ‘내가 무너지면 한국교회와 감리교가 무너진다는 목회

적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결국 보문제일교회의 갈등 해결의 첫 시작점은 제가 담임목사로서 목회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올해 부임 5년째를 맞아 교회가 안정화된 이유는 성도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목회적 자긍심을 꾸준히 견지하는 데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목사는 교회의 영적·행정적 책임자 및 회의 주재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목사는 교회 장로와 권사 등 직분자들에게 영적·행정적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감리회는 회의제 교회를 추구하며 목사는 모든 회의의 주재자다. 목사가 예수님의 직제 제자라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목회적 지도력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목회 과정에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러진 강연에서 기감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는 “감리교회 올해 교인 숫자는 114만여 명에 이른다. 교회 성도들 평

균 나이도 과거와 달리 높다. 올해 기감이 청년 대상 영적 각성 대부흥집회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향후 200만 전도운동 및 영성 회복 기도운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감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려고 한다. 이를 위해 기감 전교회를 상대로 탄소배출량 줄이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교회 밖 이종직 목회자들의 직업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교회 회복 운동, 세계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등 기감 차원의 제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강연을 전한 신흥교회 최재훈 목사는 “2000년 초반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정체가 직면했다”며 “이를 위해 회심 사역에 주력했다.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도들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 이어서 소그룹 모임 당시 한 성도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죄를 고백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화실이 터져 나갔고, 교회 전체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상가에서 탈피해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교회건축 이후 지역사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3040대 중심의 주거군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부모는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로 따라가는 특성상 저는 교회학교 사역에 중점을 뒀다. 교회의 에너지는 한층 더 갖기에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했다.

최재훈 목사는 또한 “예배 이후 속회

모임에서 속장은 영혼을 만지고 성품과 영성을 갖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게 마땅하다”며 “매주 선포한 설교에 대해

질문 몇 가지를 주보에 적었고, 속회 분과 시간에 구성원들이 서로 질문을 나누고 대답할 수 있도록 했다.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고 했다. 두 번째 강연에선 김진호 전 감독회장이 강연했다. **노형구 기자**



행사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술·담배·가짜명품 선물? 기독교인은 선물도 선별해야”

박종순 목사, ‘술과 담배, 가짜 명품을 선물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답해

박종순 목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 대표)가 최근 ‘바른신학 균형생활’ 유튜브 채널 통해 ‘술과 담배, 가짜 명품을 선물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박 목사는 “선물 자체는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며 “그러나 기독교인의 경우 선물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선물하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이유는 그런 것 말고도 선물 종류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아 통제가 어려워진다”며 “그리고 담배는 폐암이나 간암을 유발하는가 하면, 간접 흡연의 피해도 커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술과 담배)을 선물로 구입하는 것 또한 잘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장려할 일도 아니다. 선물은 정성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고가의 물품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박종순 목사 “가짜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짜 명품이나 모조품은 법이 금한다”며 “가짜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파괴한다. 소위 짝퉁을 명품인 양 입는다든지 치장하는 것은 잘못된 허영심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장지동 기자**



박종순 목사. ©바른신학 균형생활

이어 “내가 가짜 모조품을 구입하면 그 사업을 방조하고, 판매로를 넓혀 주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며 “본래 시계는 시간을 맞추는 도구였지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인식과 기호가 바뀌면서 사치품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사람이든 상품이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순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보다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주)NH투자증권, 전월투자금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관련 법령은 원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는 예금보유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고객님의 다른 예금보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투자, 문화가 됩니다. [ETF/리츠 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등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23-01894호(2023.05.25~2024.05.24)

NH투자증권

월드미션대,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비전 넥스트' 개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선교·교육·봉사’에 중점을 것”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마지막 기념행사인 <비전넥스트>가 11일 오후 6시에 학교에서 열렸다.

설교를 한 송정명 목사(WMU 2대 총장)는 “임 목사님은 93세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네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예수님께서 품었던 사역을 근간으로 해서 임 목사님이 비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 선교, 봉사”라면서 “저는 임 목사님을 49년 동안 섬기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을 잘 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이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한달 동안 모은 헌금을 한푼도 본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한국 농어촌교회에 보내셨다. 임 목사님은 말로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구촌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계활동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의 많은 반주자와 지휘자가 월드미션 대학교 출신이다. 하나님께서 월드미션대학교를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마지막 기념행사인 <비전넥스트>가 11일 오후 6시에 학교에서 열렸다. ©토마스 멩 기자



비전넥스트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총장 ©토마스 멩 기자



이날 WMU 미래를 위한 통성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토마스 멩 기자

세우신 이유가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서 “설립자가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이 이 대학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교직원들이 설립자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길 부탁한다”고 했다.

비전넥스트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총장은 “많은 신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고 있고 기독교 관련된 학과들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 학교는 목회와 신학과 더불어 다양한 학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다민족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기술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과가 생기자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도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총장은 “고 임 목사님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에 중점을 두고 나갈 것”이라면서 “교육은 월드미션 대학이 하면 되고 선교를 위해 DSLIM 파운데이션을 세웠다. 뜻이 있어도 재정이 없으면 비전을 감당할 수 없다. 한달에 10불이라도 후원자가 되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날 특별히 학교에서 제작한 임동선 목사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고 논문집과 화보집이 소개되었고 더불어 장학

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날 WMU 미래를 위한 통성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고 임동선 목사는 1923년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서울신학교와 숭실대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국 공군 초대 군종감(대령)을 지내며 젊은 시절을 군복음화에 헌신하다가 퇴임 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다.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회를 미주한인디아스포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후배 사역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OMC를 통해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했다.

1987년에는 세계 선교의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WEMA)를 조직했으며, 1989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한 지성과 영성 및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다. 토마스 멩 기자

CMF-Kid's Celebration, 어린이 웃음과 행복이 넘쳐

가정을 세우는 CMF선교원에서 제4차 CMF-Kid's Celebration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렸다. 환영식으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그룹 성경 공부와 친교, 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탁원준 선교사(페루)는 'You are on God's mind(디모데전서 2장 3절-6절)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어린이들은 뜨거운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어서 둘째 날은 그룹 성경 공부와 친교, Mini Concert가 진행됐다. 마지막은 Worship & Prayer Time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아쉬움과 은혜를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김철민 장로는 “이번 행사에는 유치부에서 9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50km나 되는 먼 거리에 행사를 참석한 가정은 교회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여 자녀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수고한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제4차 CMF-Kid's Celebration 한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워싱턴지구촌교회, 박승진 목사 최종 인준

온누리침례교회서 6년간 재직

워싱턴지구촌교회는 지난달 임시사무총회를 통해 담임목사 후보였던 박승진 목사를 최종 인준했다고 밝혔다.

박승진 목사는 현재 온누리침례교회(Iowan, IA)에 지난 2017년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6년간 재직하고, 조만간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최종 인준된 박 목사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였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이번 인준 과정에서 총 469명의 투표권을 가진 교인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367명이 박승진 목사를 찬성하여 전체 투표자의 78%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워싱턴지구촌교회의 역사는 한국 침례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동원 목사가 1983년 2대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미주 이민사에서 급속도로 부흥성장을 일군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1994년에는 '워싱턴지구촌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창한 기자

잔스크릭 한인교회, 굶주린 아이들 먹인다

잔스크릭 한인교회(담임목사 이경원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 'Feed My Starving Children' 행사를 본관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1월 -12월 양일에 걸쳐 열린 이벤트에는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참여해 10만개의 음식을 포장했다. 교회 체육관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한 아이들이 굶주린 친구들을 위해 작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며 음식물 포장을 돕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교회측은 “이번 행사는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의미있는 일을 해아겠다는 생각으로 기획됐다”며 “교회 썸머쿨 이익금을 포함해 2만

5000달러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이미 FMSC 디렉터는 “Feed My Starving Children 비영리 단체에서 쌀, 콩, 비타민, 채소 등을 가져오면 교인들이 10만개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게된다”면서 “이 음식들은 전세계 70여개국의 굶주린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FMSC(웹사이트)는 1987년에 설립된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모든 어린이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매일 전 세계 70개국의 학교, 고아원, 의료 진료소 및 급식 프로그램에서 FMSC 식사를 제공한다. 뉴스웨이브25 제공



체육관에서 열린 두번째 'Feed My Starving Children' 행사. ©교회 측 제공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 1956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모·효소·유산균·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에 대한 포용·공존·협력 필요해”

글로벌엘림재단 ‘2023년 글로벌엘림 다문화컨퍼런스’ 개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0만을 넘어선 시점에서 우리 사회도 이전보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이 국가 인구의 5%에 이르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데 2023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35만으로, 이주민 비율이 인구의 5%에 근접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 협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2023년 글로벌엘림 다문화컨퍼런스’가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재)글로벌엘림재단이 주최하고 엘림다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길)”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슈&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글로벌엘림재단 권일두 상임이사는 서면으로 전한 환영사에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화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다문화 컨퍼런스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 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엘림재단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계속해서 다양한 접근과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엘림다문화센터 이병인 센터장은 개회 선언 및 주제 발표를 전했으며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2021년 발표된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청소년과 대조적으로 성인들은 고정관념 및 차별과 거부 등 정서 측면의 수용성이 높고, 그 뒤를 이어 세계 시민 행동 의지도 높은 편인 반면, 교류 행동 의지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이제 250만 다문화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하고, 또 어떻게 이들과 협력할 것인지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다문화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엘림재단 구영아 사무국장의 환영사 및 재단 소개 후 재단 홍보 영상 시청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저는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들이 과거 중도에 나갔을 때의 고초들, 또 그전에 독일 간호사와 탄광노동자, 별목공으로 나간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다문화 관련 법안을 활용한 다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전진하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발제는 한국청소년행복나눔 이사장 문용선 박사, 인하대 이만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채보근 박사,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만다문화학 국제교류경영 전공주임교수 정지윤 박사,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대표 문창선 선교사가 전하고, 이슈&사례로 라파엘클리닉 남명부 국장,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유진 센터장, 필리핀 마르타나타신대원 정재용 박사가 각각 발표했다.

문용선 박사는 “외국인 국내 거주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제안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배경과 목적, 득과 실 등을 전하면서 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 수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활성화되지만, 그 반대로 권리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차별이 생기면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미적용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E7-4의 분기별 쿼트가 170여 명에 불과해 연 6만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쿼트에 비해 매우 적고, 사업장 변경 제한은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용선 박사는 특히 “고용허가제의 현황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이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임금, 고용 안정, 안전한 노동환경



이날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보장, 공정한 기회 보장, 노동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국가와 기업이 보장해야 한다”며 김주영 의원에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보근 박사(전 한국이민재단 본부장, 어울림이플립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은 “외국인 간병인력 수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간병인력제도 및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의 간병인력제도를 소개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사회도 간병인력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열악하고,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과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간병인력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박사는 이날 “법적 규정 측면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에 대한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장이 부재한 상황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식적인 규정을 강화하고 현장 지침을 일원화하여 간병인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산업화, 고령화로 돌봄노동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내국인의 간병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증가하고 있어 간병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보근 박사는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①비자 자격이나 거주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을 확보하고 ②교육과정의 현실화로, 입국 전과 입국 후 업무에 재직 중에도 외국인 간병인력의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③외국인 간병인력은 한국에 토착 3급 이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이주를 허용해야 하며, 본국에서 간호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수용하고 ④외국인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간병인력 교

육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윤 박사(한국이민다문화학회 회장,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협력(다양성의 가치와 공존의 길)을 위한 다문화 전문가 육성 직무구조도 제시에서 “법제도 및 정책 관점에서 국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교육, 생활, 취업 등의 지원과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전문가양성과정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자녀 교육, 보육, 의료, 취업 등 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 사회전문가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특히 이민·다문화 학문과 활동을 학교 안과 밖에서 국민전체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시설·생활 관점에서는 민원 창구에 외국인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매뉴얼화하여 비치하고,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통역사를 배치해 의사소통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각주 관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주거지원 상담에 불만족하는 이유의 48.6%가 의사소통 문제와 형식적 답변과 태도인데, 외국인주민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정착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창선 선교사(위디국제선교회 대표, 로잔디아스포라 부대표, 산소망교회 담임)는 “교계의 이주민 선교 흐름과 전략방안에서 선교신학적, 사회현상학적 관점의 이주민선교를 소개하고, 지역교회들의 이주민 선교 참여를 위한 제언을 했다.

문 선교사는 “전 세계인의 7명 중 1명이 이주민인데, 이주민 선교에 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이유는 선교지에

가는 속저적 선교에 고착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모든 지역교회는 이제 가는 것에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 모든 족속에 방점을 찍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속저적 선교로 나아가, 주변을 찾아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목회와 선교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원주의 시대에 지역교회는 복음으로 이주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초국가주의 시대에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며 선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슈&사례 발표 시간에 라파엘클리닉 남명부 국장은 이주민 의료복지의 현황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진료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가톨릭 교수회를 주축으로 CaSA(서울대 의과대, 간호대 카톨릭 학생회)와 함께 1997년 시작된 라파엘클리닉을 소개하고, 서울 라파엘 센터와 동두천, 천안 진료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진료 활동과 2007년부터 시작된 몽골, 네팔,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의료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유진 센터장은 “이주민 자녀의 교육정책 및 중요성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격차와 무능력, 제한적 지원시설 이용률 등을 소개하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실효성 있는 민간 차원의 접근과 의료사각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센터장은 AI 학습기기를 활용한 학습멘토링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과 병원, 의사들의 무료 의료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필리핀 마르타나타신대원 정재용 박사는 “필리핀 선교사역을 통한 이주민선교의 사례와 실제, 해결 방안에서 이주민 지원 및 선교 사례를 소개하며 “다문화 사역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

분히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며 “언어와 종족적, 문화적인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와 겸손, 협력이 요구되고 이뤄질 때 다문화(선교) 공동체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인내와 책임적 요소를 공유하고 이것을 위하여 희생할 때 다문화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 대처와 미래에 대한 대처에 많은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인 목사는 컨퍼런스 이후 “갈수록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대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와 전문기관이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이 3박자가 유기적으로 잘 협력되어야 한다.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와 함께 “최근 뉴스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하고 싶은 나라’ 조사에서 1위는 일본이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 인력을 ‘값싸게 데려와 쓰는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선택 받아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진정한 이웃으로서 대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글로벌엘림재단이 앞장서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글로벌엘림재단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되었다. 외국인 주민과 기관 및 자치단체와의 연계 활동, 한국어 교실 및 마약범죄 피해 예방교육 등의 교육활동, 다문화행복꾸러미, 자조모임 지원, 긴급구호 및 통역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결핵검진 및 예방활동 등 의료 연계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글로벌 멘토링센터, 각종 재난과 사고, 상해, 전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상담하고 치료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는 글로벌트라우마센터가 있다.

이지희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청약통장 무관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자들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088)
하우스키팅, 팻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현황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종로 1가 111 (주)한베에셋 (주)코우드 세호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상기 CG에 표연된 건축물이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옥상시설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변경여전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제리 정부, 아-하 전쟁 이유로 가정교회 탄압·목회자 체포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한 모임당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이번 집행 조치가 모압제만 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탄압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고조된 긴장과 일치한다. 당시 알제리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의 동조자로 인식하여 그들을 이슬람 통합을

위협한다고 주장해 외국 및 서구 영향력과 연관시켰다고 ICC는 설명했다.

알제리의 주요 경쟁국인 모로코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아브라함 협정의 일환으로 2020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미국이 알제리가 반대하는 영토 문제인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할 대가로 이루어졌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는 상황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7세기 이슬람이 출현하고 이후 아랍 무슬림이 알제리를 침략하기 전 이곳에는 베르베르인들이 주로 거주했

다고 한다. 오늘날 알제리 북부 카빌레 산악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베르베르족은 기독교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부흥은 알제리 출신의 베르베르인 '히포의 아거스틴'과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지역의 초기 기독교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슬람 지배로 공적인 기독교 예배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많은 베르베르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독교 유산을 되찾고 있다.

부흥은 특히 이 공동체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의 가장 큰 운동 중 하나로 이어졌다.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무슬림 이웃들에 대한 알



알제리에 위치한 교회. ©Creative Commons

제리 기독교인들의 대담한 봉사 활동은 이미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 박해를 더욱 촉발시켰다.

거의 모든 알제리 기독교인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역사를 지닌 카바일(Kabyle) 종족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

가 통합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종종 종교 문제와 교차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순교자의 소리는 "정부와 개종자 가족은 종종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게다가 지역사회는 그들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ICC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알제리 당국은 최소 16개 교회를 폐쇄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봉쇄로 시작된 박해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회가 기술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강화된 조사와 제한에 직면해 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고 베르베르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 협회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집단적 목소리를 형성했다"면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캠프와 가까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성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투옥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투옥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제리 성서공회는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면밀히 감시, 제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인쇄하고 수입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경 기자

英 캔터베리 대주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는 가자지구에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유혈 사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대주교는 시노드 연설에서 “너무 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고 민간 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지만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에 고통을 주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이 하마스의 약행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생명의 엄청난 손실과 인도주의적 재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 후반부에서 대주교는 최근 예루살렘을 연대 방문하여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과 연합하고 만난 일을 언급했다.

그는 “3주 전의 일이다. 그 이후 가자지구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살해당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수천여명이 10월 7일에 살해된 이들을 애도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가족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석방을 간청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긴급성과



저스틴 웰비 영국 성공회 대주교. ©Church of England

더욱 강력한 힘으로 다시 한 번 그 요청을 반복한다. 이 유혈 사태는 중단되어야 하고, 인질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구호품은 가자지구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위기에 대해 군사적, 정치적 답변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휴전 요구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서 듣는 도덕적 외침이다. 공동 인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안보,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웰비 대주교의 연설 후에는 예루살렘 대주교 호삼 나우움(Hosam Naoum)의

녹음된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는 “성지에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노드 회원들에게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 세계 공동체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쟁의 시기에, 특히 여기 중동과 성지에서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다. 그러나 폭력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국민의 안보와 미래의 자유롭고 항구적이며 튼튼한 국가를 위한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만이 이곳 성지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화해의 활동을 계속 확산해가는 가운데, 전쟁과 폭력과 고통이 만연한 이 시기에 비록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믿는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英 성공회 총회, 동성 커플 위한 기도 심의 위해 소집

영국 성공회 의결기관인 총회(General Synod) 대의원들이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랑과 신앙의 기도(PLF)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2월 시노드에서 승인되었으며, 새로운 목회 지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주교 총회부터 이같은 기도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작업해 왔으며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반대하는 주교 11명을 제외한 대다수 주교는 사랑과 신앙의 기도를 추천했다. 반대하는 주교는 필립 노스 블랙번 주교, 질 드프 랭커스터 주교, 마틴 워너 처체스터 주교, 피트 윌콕스 셰필드 주교가 포함된다.

11월 총회를 앞두고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는 PLF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 처리 문제를 놓고 사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난 10월 주교회의는 독립형 PLF 시행을 3분의 2 과반수 찬성이 요구되는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교들은 성직자들이 곧 기존 예배의 일부로 새로운 전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코트렐 요크 대주교는 11월 회의 시작 시 시노드 연설에서 “기도문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제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용적인 기간 동안 독립형 예배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목회적인 방법인 것 같다. 이는 사랑과 신앙의 기도



©Church of England

를 사용하려는 성직자와 본당에 필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는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성직자와 본당은 그렇게 하도록 비난이나 강요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서 동시다발 공세 확대”

러시아군이 밀리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동시 다발적인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CNN과 AFP 통신 등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장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이 동부전선 여러 방면에서 공격용 드론을 대거 발진하는 등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들어 러시아군 병력 증강과 강력한 방어선 구축으로 남부와 동부 접령지

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 공격작전은 기대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군은 동부 아우디우카 마을 부근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으며 동부 다른 전선으로 공격을 확장하고 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루피안스크 부근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자폭 드론을 대거 동원하고 있으며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도 반격을 감행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시르스키 사령관은 설명했다.

다만 시르스키 사령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침탈하려는 러시아군의 계획과 시도를 전부 분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 방면을 포함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횡수가 늘고 있다는 작전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재준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프 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국가)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Hana Financial Group supports Busan's Bid to host the World EXPO 203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해도 사회적대화 참여”

“복귀 과정에서 거론 안해… 부부도 싸우면서 대화”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 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

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더라도 자녀 교육문제는 말하지 않느냐”며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지점이 있거나 타협할 지점이 있다면 대화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며칠인데 대통령이 노란 봉투법을 거부하는지 공포하는지 보고 복귀를 결정했어도 되지 않느냐”는 진행

자 질문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맞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행사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비춰질 소지는 있고, 그게 대화 복귀에 여러 부담감 중 하나였던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란봉

투법 처리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이 있었고, 제가 얘기한 건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정부)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존중하고 복귀를 정중히 요청하는 태도 변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나의 전제는 오로지 존중이었다.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복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심판 투쟁을 강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되는 측면

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중단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정책으로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며 “대화에 복귀해서 방어도 하고 견제도 하고 저희의 요구와 정책도 강력히 주장하고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특히 하청 노동자들, 일하청간의 불공정 관행이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성명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고 이미 69시간제 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사회적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밀어붙일 도구로 활용하거나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서 정책 실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흥주 기자

서울 지하철 민주노총 노조 “시 대책 없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는 22일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를 막고자 한다”면서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인력감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최종교섭에서 채용인원을 당초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노조는 지난 9일 첫 차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파업에 이어 이번 2차 파업에도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통합노조)와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공사노조는 올해 정년퇴직 인력 276명에 대한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노조는 내년 개통하는 별선 운영 인력 360명,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역사 2인 근로를 위한 필요 인력 232명 등 최소 868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해 협상에서 신규채용 771명에 1역사 2인 근로 인력 232명을 더해 1003명을 요구했으나, 현재 최종안으로 868명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660명 인력채용과 208명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명순필 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가올 1월이면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시와 공사의 위험천만한 생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를 간 경고파업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하면 교통혼란

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9-10일 진행된 경고파업에서는 노사가 체결할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퇴근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소 대비 87%로 내려가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로 나뉜다. 인원은 공사노조가 1만 여명으로 2800여명인 통합노조 보다 월등히 많다.

이재은 기자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 편입, 6~10년 완충기간 뒤야… 단계적 방안 필요”

오세훈,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와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15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6-10년 간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뭉치 버리듯 어긋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 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대해서는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달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조경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오 시장과 특위 위원들은 종선 이후에도 메가시티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관련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며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아 기자

CRM센터 ☎1600-3705

60대 한양사 최문희 님 (75683)

50대 한양사 이상운 님 (67983)

20대 한양사 김미애 님 (22283)

30대 한양사 윤성복 님 (04483)

40대 한양사 유원성 님 (61183)

10대 한양사 레드퀵웨이니 미래의 한양사! 강은서 님

헌혈하는 당신이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

헌혈하는 당신이 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헌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혈횟수: 2023. 10. 23. 기준

한반도평화연구원 등 29일 탈북민 작가 허옥희 씨 초청 북토크 진행

한반도평화연구원과 소망있는교회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마이위크스 페이스 강남역 타워점 대강당에서 북에서 온 작가 시리즈의 일환으로 탈북민 허옥희 씨(114방문요양센터 센터장)를 초청해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한다. 사회는 신효승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남북하나재단)가 맡는다.

주최 측은 “북에서부터 여러겹의 경계를 넘으며 자신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

던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책, ‘엄마의 이별 방정식’의 허옥희 작가를 모신다”며 “여자여서, 엄마여서 더 처절했던 삶. 그 여정을 간결하고 서정적인 글로 풀어내면서도 묵직한 울림으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민 작가를 생각하면 극적인 탈출기, 웃지 못할 정작 에피소드 등 전형적인 이야기만 떠올리는지도 모르겠다”며 “우리의 이해가 여기에 멈추지 않

강제 징용을 당한 이들의 엄마의 이별 방정식 허옥희 작가

2023. 11. 29. (수), 19:20
마이위크스페이스 강남역 타워점 대강당(지하2층)

기를 바라며, 이번 북토크를 통해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 더 깊고 다양한 흔적을 마주하고 이해를 넓혀고자 한다”고 했다.

문의: 010-7440-7109 노형구 기자

“공적신학, 기독교 ‘정체성’과 ‘사회참여’ 중 후자에 더 비중”



안승우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선교신학

다시 생각해보는 공적신학(3·끝)

IV. 공적신학의 실천적 한계점들

1.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의 부재 경향

공적신학은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공공선을 위하여 바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따라서 공적신학의 최종적 목표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선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단계마다 상황마다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어떤 목표들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적신학을 주장하는 책이나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원론적인 방안제시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 공적 상황에서 비종교인과 타종교인들과 열린 대화를 하며 소통해야 한다. 2)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기독교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3) 공공선을 찾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4) 평신도들이 공적 삶의 이슈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삶에서 공공선을 실천해야 한다. 5) 교회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등의 목표들과 실천사항들이 주로 제시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안들은 마치 ‘모든 국민들이 밤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맑은 바닷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다소 원론적인 주장에 가깝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공적신학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공적신학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생각 아래 목표를 제시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수가 언급한대로 “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회와 세계 둘 다의 주인이시며 머리아시다. 그러나 세계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과 대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것으로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을 지닌 공적신학은 원론적인 주장은 있지만 그 주장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빈약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적신학은 자칫 신앙담 속에서 외쳐질 뿐 실제적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

키는 열매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힘에 대한 관심 부족 경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힘의 문제이다. 힘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신학의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역시 기독교 교회다. 즉 교회가 공적신학을 달성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을 갖출 때 공적신학이 추구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데, 공적신학의 논의들에서는 교회의 힘을 갖추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교회의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이다. 물론 일부 교회들은 외적으로 상당한 힘과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교회들 역시 세상을 향해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러한 교회 약화의 뿌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교회 자체의 윤리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 무집은 많이 커졌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지도자들의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대사회적 이미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공공성은 고사하고 자정능력조차도 상실한 모습이다. 사회적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교회의 공적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윤리적 수준으로는 교회가 공적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먼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교회는 또한 세속화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 교회가 공적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은 세속화에 밀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맥그라스는 “많은 개신교 교파들은 기독교의 지적 전통이 간직한 풍성함을 잃어버렸으며, 신비적인 요소와 초자연적 존재에 무지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구성원을 뉴 에이지와 복음 운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말았다.”고 분석하였다. 즉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힘이 될 만한 윤리적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러한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신학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의 공적 영향력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3. 추구되는 과제들의 지나친 방만함 경향

공적신학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이 관심 영역이 되며, 그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과제로 삼는다. 윤철호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사회적 선교 즉 공적신학의 실천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불의한 독재 권력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치 및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가난을 극복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맘몬주의, 쾌락주의 등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사회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100세 시대를 맞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고령자들의 치유와 건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공적신학의 과제들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제들은 한 국가의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인데 인적 물적 자원 등에서 훨씬 열세인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교회의 역량을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기본은 목표의 포커스를 작게 잡는 것이다. 힘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만한 목표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스티븐 나일은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공적신학이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공적신학에 대한 세바스찬 김의 분석을 정리한 윤철호도 공적신학의 문제점 중 하나를 ‘관심주제가 너무 넓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매우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는 이슬람 성직자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성직자가 국가 전체의 경영을 주관하니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 또는 신학자들 역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공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 모든 공공 영역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자칫 이슬람 국가 성직자들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물론 교회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적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서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공공영역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바른 목표 설정의 미흡 경향

공적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공공선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공선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공공선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른 것을 공공선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일치된 공공선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선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윤철호도 세바스찬 김의 견해를 도표화하면서 공적신학의 문제 중 하나를 “공적(public)이란 의미의 모호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무엇을 공공선이라고 볼 것인지 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공공선인지 합법화 하지 않는 것이 공공선인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 관점이 다르다. 또 자유경쟁보다 평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공공선인지 평등을 고려하면서도 자유경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공공선인지도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떤 하나의 입장을 공공선으로 보면서 그것을 사회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뉴비긴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어떠한 특정한 정치체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긍된다. 정치에 절대성을 개입시키는 것은 언제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설교한 바 있는데 공적신학이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공적신학은 정의와 평화의 성취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실사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바쁜 세속화가 확산된다면 과연 복음이 공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세속사회에서는 기존 사회에서 진리 인식의 기초로 인식되던 기독교 전통이 제공한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사실(fact)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적 인식은 보편타당한 진리로 공적 영역에서 수용이 되지만, 종교나 도덕 같은 것들은 사적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 신앙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추방되고 사적 영역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수용되는 진리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신학은 정의와 평화와 같은

공공선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공공선 자체보다는 사회의 공공선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의 핵심적 상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뉴비긴이 언급한대로 “모든 사람은 항상 불가피하게 자신이 속한 또는 선호하는 문화와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고와 행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회를 바꾸려면 문화와 세계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 핵심적인 상식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꿀 때 기독교가 진정으로 공적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네오막시스트들이 한 사회의 기존 상식을 뒤엎고 막시즘의 사고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진지전을 벌인 것처럼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의 핵심 상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적신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물론만은 “신학과 교회가 현대의 문제들에 부실하고 관계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더욱 더 위기에 떨어진다.”고 하면서 ‘정체성’과 ‘사회참여’의 딜레마를 언급한 바 있다. 이렇기도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에 안주하는 한 교회의 사회참여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교회의 사회참여에 전념하다 보면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해매지 않나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까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적신학은 위에서 언급한 ‘정체성’과 ‘사회참여’ 중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교회 즉 세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교회들은 복음 열정의 약화와 그로 인한 교회의 약화가 일어나 쇠퇴하면서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마저 점점 더 상실해가는 반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사회봉사도 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공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정체성 강화나 성장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존립이다. 유럽 지역처럼 교회 자체가 약화되면 ‘사회참여’는 그저 희망사항이 될 수 있다. 공적신학이 강조하는 공적 영향력도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흡수되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약화되거나 사라져버리면 공적신학을 실천할 일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정체성 유지와 강화는 공적영향력의 근본적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신학에서 이러한 점들이 함께 논의되면서 그 한계점들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위해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벨,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성숙도를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문의: 031-858-9800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노크로신학**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주소를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공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성전예배와 생활예배



본문: 암 5:18-24
설교: 삼척제일교회 박선진 목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성도들의 바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예배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바로 드리면 믿음이 좋아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면 영혼이 평안해진다. 이유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이며, 모든 어둠의 요소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인데, 이 말은 'worth(가치)라는 말과 'ship(어떤 상태나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예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오늘 성경은 아모스의 예언 중에서 예배에 대한 예언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남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기와 성화를 지키는데, 그것이다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반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그들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생활 속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예배와 생활이 연결이 되지 않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새겨보겠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제와 소제, 화목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예배에 대해 아모스가 말씀에서 언급하는 구약의 예배를 잘 모르고 지나는 것 같아서 먼저 구약 예배를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지, 정성스럽게 드린 제사, 그들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어둠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을 결론 부분, 아모스의 예언이 말하려고 하는 점을 생각해보려 한다.

22절을 보면, 오늘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 중에 세 가지 예배 방법이 나온다. 반제, 소제, 화목제이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반제, 소제, 화목제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제사들은 제물을 불에 태워 올리는 제사이다. 화제 즉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이다. "향기롭다"는 단어는 "위로하는, 즐거운"의 의미를 가졌다. 즉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제사이다.

1) 먼저 반제이다. 반제의 제물은 수소나 숫양, 숫염소 또는 비둘기이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은 반제를 드려야 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이다. 그런데 제사는 구약 방식의 "제사의 죽음"이다. 그는 반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레14) 반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예배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의 모형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반제를 드려야 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씻는 방법은 자기 죄를 씻어서 그 동물을 불태워 드리는 희생의 반제 말고는 없었다. 믿음으로 동물의 희생을 드려 죄를 속하기 위해 누구나 반제를 시행해야만 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구약 때는 반제를 통해 죄값을 대신 하는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갈 수 있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반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19)

반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이다. 반제는 장차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자,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시라" 예배이다. 매일 드리는 상반제를 비롯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의 반제가 드려졌다. 죄가 사함 받아야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소제이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다. 소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곡물 제사이다.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것, 냄비에 튀긴 것, 첫 이삭 등을 드리는 것을 통틀어 소제라고 한다. 반제는 피 있는 제사로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입으려는 뜻이 있었다. 피 있는 제사는 소와 송아지와 양, 염소, 비둘기가 쓰였으나, 피 없는 제사인 소제는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과 기름과 유황이 드려졌다.

소제는 반제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레22)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레24)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레27)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부어 찜는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레24)

고운 가루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했다. 소제는 온전한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반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다. 고운 가루는 완전히 뺀 가루로 사람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의미한다. 죄인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어지고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얻었고, 이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소제이다.

소제에는 기름과 유황을 함께 소제물에 붓는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 시대의 성령과 기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회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역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유황의 향기로운 고백과 감사가 드러지기를 바란다.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섞어서는 안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레21)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소제를 통한 감사의 고백은 죄를 동반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죄를 동반한 고백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반제의 희생,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러나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동반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5:6-7)

3) 구약 정구제사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목제이다. 화목제는 평안의 제사이며 켈레임스역에서는 'peace offering'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वाद 같은 관계였다. 그러나 제사, 즉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되찾았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제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이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의 제사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0-11)

구약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약의 화목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연합과 일치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4-18)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즉 한 새 사람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서로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희생제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였고 사람들과 화평을 얻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화평을 얻었고, 또한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안이 임했듯,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감사해야 한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 이웃들과 화평하게 되며,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은혜가 강 같이 흐르고 평강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남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여찌하여 여호와와 남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호와와 남(욘 아도나이)은 예언서에서 마지막 때를 일컫는 표현이다. 주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미래의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 말고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가 내게 반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가 나섰을까? 왜 예언자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고 계실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안에서 그칠지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의 찬양과 복음사가 제창과 특별연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평안을 주시며, 하늘 복이 임한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면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런데 예배에서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일까? 아모스는 24절에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직 정의를 말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때에 맞춰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라 생각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로운 생활의 실천이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받아주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먼저 성전에서 진실하고 영감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져야 한다! 성전예배와 생활예배의 연결과 균형잡힌 실천이 아모스의 예배 정신이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 한국교회에 예배와 생활이 연결되지 않고, 믿음과 인격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믿음 좋

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때는 너무 타락되어 있고 교만하며 거짓되어 도무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예배를 판단하실 것이다. 예배 때는 "아멘 주여"를 찾으면서 천사 같고 의인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우나,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시장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믿는 사람들 경우가 많다.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삶이 그르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매우 적게는 한번, 많게는 10번 이상 예배드린다. 예배를 계속 드려다보니 습관이요 의무가 되었다. 의무로 예배드릴 때 무언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공로로 예배를 생각하기 쉽다. '내가 이만큼 하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실 거다' 라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공물이 아니다. 예배에서 말씀으로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고, 생활은 예배를 통해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생활은 예배에서, 예배는 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해야 한다. 앞에서 구약의 예배, 반제 소제 화목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깨닫고 변화된 사람, 중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받은 은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이다. 절기는 특별한 예배일이다. 우리는 이날 바른 예배를 주께 드려야 한다. 요한 4장 23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진실하게 영감있게 드러지고 영적인 감동이 넘치는 추수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지! 또 아모스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생활에서 '오직 정의를 말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하였다. 성전예배를 영감 있게 드리고, 생활예배를 의롭고 반듯하게 드리며 살아야 한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첫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다. 낚시하는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여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어스름이 되도록 낚시를 하는데, 아는 교인이 지나고 있었다. '목사님, 뭐하세요?' '낚시하잖아요?' '지금 추수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낚시를 딱 끊었다고 한다. 어떤 장로님은 바둑을 좋아해서 교인들하고도 바

둑을 자주 두었다. 그런데 바둑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어쩌다 강대상에 올라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 머리가 다 바둑알로 보이더라. 이런 취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

요즘 다나델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부부는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오고 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몸이 기뻐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에서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데 3천 번 이상 엉덩방아 찧었다고 한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쓰는 선수다. 왼발로도 똑같이 슈팅하기 위해 그는 백만 번 이상 연습했다고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예배를 영감있게 드리는 것, 성전 예배가 생활 예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다 훈련해야 한다. 예배 훈련,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한국교회에 부흥된 이유는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부터 예배훈련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도 추수감사절답게 훈련받았다. 철원평야 근처에서 목회하던 우리 선배가 추수감사절이 되니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의 삼일조를 달구자에 살아와서 교회 강단에 올려놓고 감사하더라는 것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였다. 젊을 때부터, 평소부터 항상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바르게 훈련하고 올려드릴 예배, 성전예배와 생활예배!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트든타

고객케어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배짐없이 점검

솔솔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본문: 암 22-1981(반제)고전5:6, 2022.9.27-2023.9.26 |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 앱 '트든타'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의미의 시대」가 주는 ‘의미’

신성욱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마케팅의 구루(guru)라 칭송을 받아온 세스 고딘(Seth Godin)이 쓴 최신작 『의미의 시대』(알에이치코리아, 2023)가 출간되었다. 16년 전, 마케팅의 새로운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보랏빛 소가 온다』를 인상 깊게 읽고 자극을 받았기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았다.

책 서두에 존 헨리(John Henry)라는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바위를 폭파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일을 담당했다.

심리학자 닐 밀러(Neil Mil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기 드립 기업의 직원이 작업 현장에 드릴을 가지고 왔을 때, 존 헨리는 드릴을 거부했다. 그는 자기 일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기계가 인

간의 일을 대체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으려 했다.”

헨리는 기계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자였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탈진으로 사망했다.

너무 많은 수고와 희생을 대가로 얻은 그의 승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듭지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인간의 노동은 기업가들이 개발하는 기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기계가 개발될 때마다 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또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기계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일자리로 넘어가야 했다.

2023년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기계는 호텔에서 일하는 로봇,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밥과 반찬을 정확한 위치로 배달해주는 로봇, 설교문까지 친절하게 작성해주는 ChatGPT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당황할 정도로 말이다. 세상

이 요구하는 바가 180도로 변해간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말이다.

기계나 인터넷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다보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간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 안수 받은 설교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끔찍한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는 신학을 전공하는 것보다는 ChatGPT를 잘 활용하는 자가 더 우수한 설교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이런 현실을 예상하며 염려하는 이들이 왜 없겠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의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위험하고 손해(危)가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잘 다룬다면 새로운 기회(機)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무리 기계나 컴퓨터가 발달한다 해도 그것들이 접근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인간 외에는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 남다른 전문성과 탁월하고도 차별화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과 ‘창조성’이다. 기계나 AI는 결코 갖출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이다.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차별화되는 설교를 하려면 우선은 기계가 따라올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설교자들조차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인간성(ethos)’을 지녀야 한다.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도 중요시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들을 전해주는 이들의 ‘고결한 인품’에 더 감화를 받는다. 사람들은 ‘메시지(Message)’도 소중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Messenger)’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먹하겠는가? 단박에 “너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기계나 ChatGPT는 인격체가 아니다. 윤리성도 도덕성도 없다. 이단인지 정통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 인터넷상에 올려진 무수한 자료들을 종합 정리해서 순식간에 정보와 지식을 소개할 뿐이다. 탁월하고 수준 높은 정보와 지식보다는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모범된 인간

성을 더 크게 본다. 그런 점에서 영혼 없는 기계나 AI가 완전히 사람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성’이다. 이 ‘창조성’이란 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인터넷 상에 올라 있는 자료나 정보를 말고, 나만이 체험하고 깨닫고 발견한 신선하고도 전혀 새로운 얘기들을 보여줘야 한다. 차별화 되는 내용이나 얘기를 말이다.

설교를 듣는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인품의 소유자(인간성)가 성경 본문 속에서 다른 설교자들이 보지 못한 영감의 새로운 내용을 캐내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막힌 양념을 치고 요리를 해서(창조성) 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ChatGPT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으리만치 소중하고 차별화 된 ‘인간성’과 ‘창조성’을 백분 활용함이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지혜요 전략임을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구원의 조건 믿음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위한 제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율법에 핵심은 바로 용서와 화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행위 율법만을 지켜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행위율법을 다 지킬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 3: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상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이 말하는 행위로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공로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WCC와 NCCK 같은 기독교단체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바로 공로와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혹은 행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행위가 있다 해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임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11장은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후반부 12-15장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해답으로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구원에 합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율법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뿌려지는 씨



안인권 목사
새소망교회

이하의 차가운 온도에서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발아하지 않는다. 계속 따뜻한 온도에 보관했던 씨는 발아하지 않는다. 농부는 추수 때에 가장 먼저 건실한 열매를 선별해서 다음 해 농사를 위한 씨앗으로 보관한다. 씨앗 보관 창고는 늦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그 다음 해 봄까지 계절의 온도를 그대로 경험하게 한다. 씨앗은 아무 감각도 움직임도 없는것이지만 계절을 익히며 봄을 기다리고 있다가 봄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싹을 튀운다. 실수해서 방안에 두었던 씨앗은 신기하게도 싹이 나지 않는다. 씨는 방안에 있는 동안 겨울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봄이 되어도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 좋은 조건인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준비가 안된 사람이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인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력이 생긴 것이다. 인생의 말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좋은 조건인 사람이 아닌 수 없는 지력과 노후를 익힌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다(히 12:5-13)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연단없는 성공, 승리, 축복은 없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명품 바이올린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쳐준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기술적인 요인 외에 근본적인 요인 있다. 재료가 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이다. 신비의 소리의 원천이 나무가 빗하기에 자란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이다. 겨울에는 나무가 성장을 거의 멈추고 나뭇목으로 버티면서 새 봄을 준비하는 휴면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나무가 겨울에도 자란다는 점이다. 여름처럼 활발한 성장은 아니지만 겨울에도 모진 추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성장이 있다. 무시할 정도의 작은 성장이지만 의미심장한 성숙의 고통이 나무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나이테가 넓은 것은 여름에 자란 흔적이고 나이에 간격이 좁은 것은 겨울에 자란 것이다. 나이테 간격이 좁다는것은 성장 환경이 녹록치 않았다는 증거이다. 살을 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나무는 나뭇목으로 견딘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신비한 소리의 원동력은 거의 자랄 수 없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버티면서 참아낸 인고의 시간을 내면적으로 승화시킨 나무의 생존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신비한 소리의 정체가 혹독한 추위를 버티면서 내면으로 승화시킨 고통이 내는 선율의 진동인 것처럼, 보람있고 가치있는 성취의 이면에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표출할 수 있는 인격적 신앙적 향취와 독창적 색깔이 있다.

아름다운 선율의 비밀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바이올린뿐이었는가? 인생은 예외없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 추위가 혹독할 수록 성장은 더디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내면의 성숙의 시간이 된다. 상처 뒤에 남은 흉터의 흔적이 흉할수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로되게 된다. 하나님은 때때로 추운 들판을 홀로 걷게 할 때가 있다. 안락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 삭풍이 부는 들판에 홀로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도와 눈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물이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예수님이 행하신 마음 치유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뮤니티
한인교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16절) 이사야서의 상기 말씀을 펼쳐서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21절)고 말했습니다.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므로 고향 사람들 앞에서 당신께서 바로 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펼쳤던 이사야서 61:2의 말씀과 누가복음이 기록한 말씀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빠진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가 추가되었습니다. 후자가 추가된 원인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사용했던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었으며 그 역본에는 장남을 고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성경 말씀은 거의 다 70인역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빠진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의사 누가로선 70인역의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더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말하자면

상한 마음을 고치는 심리적인 치유는 최근에서야 발달되었기에 당시로서는 생소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의 히브리 원전대로 따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심자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야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포로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을 원어로 따지면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망가진 마음입니다.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려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공교롭게도 그 문구를 뺀 누가복음의 이어지는 본문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야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바로 의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풀어서 설명하자 분노에 차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내리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고 하니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서지기는커녕 아주 견고한 진을 쌓고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것 과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하여 정말로 마음이 상한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몬 땅에 있는 사렘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문둥이 나이만입니다. 당시에 과부도 문둥이도 많았지만 그들 둘에게만 각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부는 죽은 아들을 슬퍼하고 있었고 나이만은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적 치유가 필요한 우울증이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니라 인생사에 누구

나 겪는 죽음과 병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전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이만의 경우는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동기라는 차원에서 많이 부족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썼든 하나님이 외면하면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은 순전했습니다.

메시야가 와서 싸매줄 상한 마음이 어린 시절의 혹은 인간관계의 상처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일시적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각자도 육신의 병환을 고치는 의사도 마음의 상처를 따뜻하게 위로 격려하는 상담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찌든 존재 전체를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분은 완전히 죽어있는 자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자가 복음으로 산산조각 난 마음이 다시 회복되면 포로 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탄에 미혹되었던 영혼이 성령의 간섭으로 풀려나는 것을 뜻하지만 얻은 후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에서도 자유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산산이 부서졌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다시 회상해 보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기에 주님의 심자가 은혜에만 온전히 의탁하여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즉 세상에서부터 생깁니다. 구원 이후에도 옛 본성이 되살아나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었거나 최소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나를 알아봐주는 대우를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려면 다시 역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두고 있는 소망이나 미련을 완전히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싸그리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예수님의 심자가로 구원 받아놓고 다시 세상에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칫 예수님의 심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사로 만들고 그분을 다시 욕보이게 하는 죄가 됩니다. 주님으로선 우리의 그런 잘못마저도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신자입니다. 세상에 계속 기대했다간 상처 받은 마음을 회복할 길도 없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상처는 계속 생길 것이니까 말입니다.

社說

“신천지 OUT” 표어만으로 대응 끝?

지난 12일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수료식에 참석한 10만 명 중 6.5%가 한국교회 목사, 장로, 신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료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신천지 산하 12지파에 새로 입교한 신자들이라는데 이중 상당수가 한국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교계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 입교해 신천지 교육을 이수한 10만 명 중 한국교회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수가 6,274명으로 이들 가운데 목회자와 원로목사, 장로, 신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천지가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실이라면 한국교회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수료식에 참석자 522명에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여서 사실 여부를 떠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물론 신천지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신천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수료생은 1만5천명 수준이고 예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교계에서도 신천지 측이 밝힌 숫자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고 대부분 기존 신도들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10만 명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수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형 스타디움을 빌려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내부 결속과 대외 과시 용이한 해석도 있다.

신천지는 3년 전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가 신천지 측에 1천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만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방역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는 듯했다.

그렇던 신천지가 다른 도시도 아닌 대구에서 연달아 간재를 과시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 개최한 배경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시가 재판부 중재로 1천억 대 손해배상을 취하한 데 이어 이어 신천지에 대구 스타디움 시설 사용을 허용한 것을 두고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구시가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다.

대구시가 어떤 이유로 신천지에 공용시설 사용을 허가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천지에 대응하는 문제의 핵심일 수 없다.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세 과시를 하고 내부 결속에 나서든 결국 그 타깃이 한국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이 탈라질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신천지에 대응해 온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각성하는 기회

로 삼는 게 더욱 중요하다. 신천지 측 신도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집요한 포교활동을 벌여온 건 그리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와 신학교 등에 파고 들어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섭에 나서고 있다는 건 최근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다.

신천지대책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와 신학원 등을 대상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MOU를 체결하자고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신도 몇 명이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는 식이었으나 지금은 대놓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까지 하면서 어려운 교회 사정을 이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신천지는 왕성한 포교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내려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비대면예배가 보편화된 후 교회마다 공예배 인원이 100%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이단에 빠진 이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천지는 한국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 희망이 없고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14만4,000명과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세우시는데 이들이 바로 신천지라고 선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꿰맞추는 이단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이단에 혹해 넘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문제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 신학생들까지 신천지로 가는 걸 단순히 무지의 소치로 단정할 있을까.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 성도뿐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까지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한다.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출입문에 “신천지 OUT” “신천지 이단의 교회 출입을 금한다”는 풋말을 붙여놓고 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단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런데 이것으로 신천지 대응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도 신천지 신도들이 이 풋말을 비웃듯이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며 교인들을 빼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이들의 자인망식 포교에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고용호조에도 '쉬었음' 청년 41만 명, 노동시장 유입에 1조 투입

정부, 비경제활동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정부가 올해 들어 역대급 고용률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이 40만명을 넘어 1조원을 투입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4000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 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빈자리 청년취업지원금과 50억원 규모 상생연대형성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쉬었음' 청년이 증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구직난이 심각했던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력 현상으로 인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난 7-10월까지 청년들을 상대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과정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내년엔 389억원을 투입해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엔 50개교로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제공

1663억원을 들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9000명) 등 양질의 청년 일경험을 확대한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잘 적응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자체와 함께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일상을 유지하도록 각종 모임 활동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기존 단계(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대상도 9000명

으로 확대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로부터 고립돼 은둔하는 '니트' 청년을 위한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취약청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회관계형성과 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돌봄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원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 등도 확대한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청년, 학교부진청년을 위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도 마련한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청년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공장을 늘린다. 빈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만4000명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 12만명에게 혜택을 나눠준다.

서더는 기자

'발열·오한' 쯤쯤가무시증 환자, 4주간 5배 급증... "야외 진드기 조심"

최근 4주 145명→ 748명 감염 급증

최근 4주간 쯤쯤가무시증 환자 수가 5배 늘어나 784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쯤쯤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탈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 3배 이상 급증하고 환자 수도 145명(4주)에서 784명(4주)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쯤쯤가무시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쯤쯤가무시균을 보유한 탈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쯤쯤가무시증은 탈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질병관리청 제공

탈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해 개체 수가 증가하고,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쯤쯤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 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질병청장은 "쯤쯤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야외활동 시 탈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더는 기자

서울시 봉사상 21인 선정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상'

1989년 시작해 올해 35회째 시상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에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시작해 올해 35회째를 맞는 서울시 봉사상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대상 수상한 민간 재단전문 봉사단체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41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배식과 취약지역 점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래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훈장 대상 김승환씨는 "이 상은 전국 10만이 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강남구 소의계동 150여 명에게 배낭급 수술비용을 지원한 김태수씨, 급식 등 봉사활동을 약 2만7000시간 동안 한 박문실씨, 청년자원봉사자 이준희씨, 2년간 교육봉사단을 운영한 제이아이코리아, 16년간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84세의 고령에도 17년 동안 꾸준히 호스피스 병동환자들의 심신을 위로해주고 있는 임석순씨를 포함한 개인 14명과 전통 된장·간장 등을 제조해 복지 사각지대에 기부하고, 우리나라 전통장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양천장독대봉사단(단체)이 뽑혔다.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106건(개인 91·단체 15)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공적 검증과 언론 안고수시민단체 등 14명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관악구 수해재난 방지하 주택 도배 활동 중인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서울시 제공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렸다.

정성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잦은 폭염과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겪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봉사상 시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서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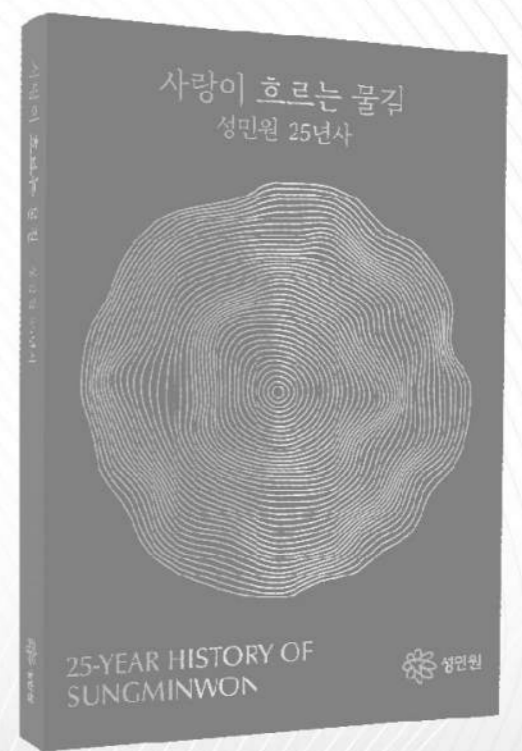
시상식은 오늘(1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이우리 기자

→ 복지를 하고 싶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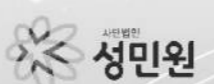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군포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빛과 소금의 역사! 성민원 25년사 '사랑이 흐르는 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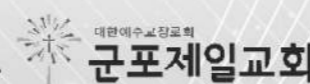
복지의 제1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복음에서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생각하고 하나씩 만들어가니 그것이 복지였습니다. 성민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투자할 때,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계속 사랑을 쏟고 심고 나누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축복이 있기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계속 헌신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설립자 정신 중 -



성민원 설립 25주년 기념명상



성민원은 군포제일교회가 설립한 복지전문기관입니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또는 성빛출판사 홈페이지(www.sungbit.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31-397-2051



부동산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용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터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 010-7506-1009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330평
-임대료: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 010-3702-3251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 010-3899-1626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 010-3283-4047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 010-6208-3698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 010-6707-1374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면적: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 010-9218-4375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 010-2510-0769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 010-9363-1400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 010-5423-0159

신문 광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1. 16. ~ 2024. 1. 16.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1. 16.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 6. 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근
○ 공고기간: 2023. 11. 16. ~ 2024. 1. 16.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최희진
2023. 11. 16.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1. 16. ~ 2024. 1. 16.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3. 11. 16.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 4.
○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3. 6. 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1. 16. ~ 2024. 1. 16.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3. 11. 16.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화성시 교회 긴급매매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 면적: 대지 100평/ 건물 250평 (지하1층~지상3층)

☐ 매매금액: 280.000 만원

☐ 용자금: 90.000만원

☐ 입주가능일: 매매 즉시 목회 가능

*목회자 사택 즉시 입주가능

*복지시설(요양원)동시운영 가능

▶ 연락처 ☎ 010-5779-2368

급 기도원, 연수원, 수양관 매

강원도 평창, 총 3500평

최고의 시설과 조건

사유지 막창 끝자락

계곡, 등산로 독점

전용 진입 도로 300m

도로에서 보이지 않음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조망

☎ 010-6659-2999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인생의 살롬을 이루어 가는 21일 묵상

신간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혹등고래는 다른 고래들보다 느리다. 하지만 춤을 즐기고 노래를 많이 부른다. 이들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혹등고래는 그 거대한 몸집만으로도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 '바다의 수호천사로 불릴 만큼 착한 성격을 가졌다. 바닷속 작은 동물들을 큰 동물들에게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바닷속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한다.

류인현 목사(뉴프론티어교회 담임)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심해로 내려가 죽는 혹등고래에게서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저자는 본 도서를 통해 독자들이 21일

간의 묵상과 기도를 따라갈 때 그 끝에서 살롬을 누리길 소망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와 같은 삶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행복이 왔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할 뿐이다. 왜일까? 삶의 모든 것을 오롯이 자기 스스로, 다 독박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라.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바로 자유의 역풍을 맞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지만 그 결말은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는 거였다. 자기가 주인 된 삶의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넘어진다. 자주 실패의 쓴맛을 본다. 실패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없어서 실패할 때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 프로 야구에서 안타를 가장 많이 치는 선수도 타율이 고작 3할대다. 투수가 던지는 공 열 개 중에 세 개 남짓 밖에는 안타를 못 친다는 뜻이다. 공격의 70퍼센트

는 늘 아웃인 셈이다. 타자는 땅볼이나 삼진 아웃으로 쓸쓸히 퇴장한다. 만약 이 선수가 아웃을 당할 때마다 자책하고 좌절했다면 3할대 타자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다.

끝으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삶의 컨텍스트와 이전 년 전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지역의 삶의 컨텍스트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전 년 전이라는 시간적인 큰 간격과 중동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큰 간격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와 이전 년 전 유대 사회와 닮은 꼴이 있다. 바로 백성들이 자져 있다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삶이 힘들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삶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의 지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생명과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영혼 구원을 통한 삶의 총체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성경으로 하는 위-안-밖 기도

신간 '기도를 배우다'

기도는 하나님께 고하는 신앙고백이자, 창조주께 구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따라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 간곡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마땅한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얼마나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등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일 때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떤 방법이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에 달렸다.

본 도서의 저자 이상복 목사(장훈대학교)는 모태신앙인으로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섬기며 자연스럽게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다 찾아서 기록하

고 학습하며 성경적 기도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도의 대가들이 쓴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성경적 기도에 필요한 원리들을 찾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의 영이신 하나님께 성경적 기도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짖느냐보다 기도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라고 약속해 주셨다(요 15:7)"고 했다.

이어 "성령이 증거하는 방대한 하나님을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표준 교과서로 사용하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성취하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친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안 되는 기도는 하지 말고, 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안 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 즉 아파트 편수를 늘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땅 사고, 주식 사고, 보험 들고, 재산이 늘어나게 해 달라는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수십 번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에 근거한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안 되는 기도를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그래픽 논픽션 '전쟁이 나고 말았다'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새해 소원은 딱 한 가지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죽는 것"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노라 크루크는 양국의 두 지인과 주교받은 소식을 꾸준히 '전쟁이 나고 말았다(다엘리아)'에 담았다.

책은 우크라이나 기자 K와 러시아 예술가 D, 두 지인과 저자가 매주 주고받은 소식에 기초해, 지금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1년 동안 국경의 양편에서 들려온 증언을 52주 동안 실시간으로 기록한 그래픽 논픽션이다. K와 D의 이야기는 병렬적으로 1년간 이어진다. 국적도, 직업도,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종종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아찔 수 없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드러난다.

노라 크루크는 K와 D의 서사를 역지로 화해시키지도, 무리하게 연결고리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저 병렬해 둘 뿐이다. 그러나 독자는 두 이야기의 종종 대화하기 불가능한 곳에서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누가 더 고통스러울지를 비교하는 대신, 전쟁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감하게 된다. 신재우 기자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오셨다. 예수의 일은 구원이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 면면이 이어져 온 모든 주제와 기원과 운동이 결집되어, 최종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곧 예수다. 마태는 한 지방에서 벌어진 예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정황 안에 배치하면서 신앙성경의 문을 연다.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의 기록을 읽노라면, 우리는 앞서 일어난 모든 일과 연결 지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만 해도, 마태는 독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약의 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성취된다"는 말은 마태가 유독 많이 쓰는 동사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다. 예수는 독특하지만 유별난 분이 아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묵상성경 신약'



다윗이 캄캄한 밤하늘을 올라다보며 거기 가득한 주의 영광을 발견한 이날은 언제였을까요? 양을 치던 소년 시절 고단한 몸으로 들판에 누워 아침을 기다리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편향센 장수로 전장을 누비며 승리의 깃발을 나무꾼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늙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살기를 피해 도망 다니던 비참한 그 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이든 다 가능해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찾아내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사귄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루를 지냈더라도 또 어떤 하루를 맞이하더라도, 매일 한번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겠습니다. 사방이 캄캄해도 반짝이는 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린 다윗처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KMC 편집부 '2024 하늘양상: 가정예배서'



목회자로서 나는 20년 넘게 사역해 왔다. 내가 2003년도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한 교회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등과 쇠퇴를 경험해 왔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대략 2-3년 뒤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그동안 그 교회는 온갖 기묘한 수단과 현명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그 당시의 난처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구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 그처럼 오랫동안 쇠약해지고 지쳐 있던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으실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나의 최대의 실패라고 여겼던 것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결정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배부시킬 수 있는 친절한 섭리 때문이었다. 내 발의 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 안을 맡아붙이지 않고 거두어들이었을 때, 우리 교회의 오랜 교인들은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즉, 그때까지도 그들은 나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발의안 상정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나를 내게 확보보다 교회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크로포트 '성경적 교회 살리기'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인들
저자 이효준 장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말씨와 쉬운 문체로 전하는 변혁의 메신저'를
만들어낸 신앙인들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1)

창 28: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28: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꼴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 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8: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

28:19 그 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8: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8: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8: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믿음의 열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현실이란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야곱은 형



Jacob's Dream - Lo Spagnoletto ©wikipedia.org

에서의 미움을 받고 집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면만 봤을 때 이 땅에서 기둥으로 봤을 때 야곱은 축복받은 자의 모습에 아닙니다.

광야에서 노숙하고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야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슬기자

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난해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늘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이 주는 축복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겉 포장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은 보잘 것 없고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겉 포장지는 정말 볼품 없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아름답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가치를 발하고 영원토록 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썩어질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조 야곱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벳엘의 자리를 통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벳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야곱을 벳엘 이전과 벳엘 이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벳엘 이전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임한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현실에서 괴로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광야에서 구석에서 돌을 베고 삼고 누워 자고만 있었습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아벨은 아담과 하와와 둘째 아들이며 형인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최초로 죽은 자이자 피해자이다.

- * **아벨에 대한 대략적 개요**
 - 아담과 하와와 둘째 아들이며 이름의 뜻은 허무이다.
 - 가인의 동생
 -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만 아벨은 목자였다.
 -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 쳐 죽였다.

- * **아벨의 생애**
 - 출생과 이름
 -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찾아들인 가인을 낳는다. 하와는 가인을 무척 아꼈다. 얼마 후 아벨을 낳는다. 그런데 아벨의 원어인 '하벨'은 허무란 뜻이다. 가인은 '더한디라'는 뜻이다. 왜 가인에게는 복의 의미를 더하고, 아벨에게는 허무 또는 쓸모없는

자란 이름을 주었다. 학자들은 아벨이 원명이 아니라 창세기 기자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직업**
 - 가인은 농부이다. 농부의 원어의 동사형은 '심킨다'라는 뜻이다.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가인은 저주받은 땅을 심는 자이다.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하지만 아벨은 목자이다.
 - **제사**
 -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다. 이 부분은 많은 속도가 필요하다. 왜 제사를 드렸으며, 어떻게 제사를 드린 것일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다분히 출애굽적이다.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사(열매)이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창세기 기자는 가인이 구분 없이 소산한 듯 드렸다면 아벨이 드린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다. 첫 새끼와도, 그 기름이다.

아벨(abel)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들렸다고 말한 다.

히브리서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아벨을 죽였을까? 비교하기 때문이다. 아벨의 열납된 제사는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아벨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가인에게 살해당했을까? 아벨을 가인이 자신을 불렀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벨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문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될 갓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벨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아벨의 피는 순교자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피다.

마태복음 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바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

에게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1: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선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히브리서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2: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 결론
결론을 내려보자. 아벨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임이며, 죽음을 피하지 않은 자적인 죽음이다. 그는 마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았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올른 예수 그리스도처럼.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Matthew 11:6 NIV Blessed is anyone who does not stumble on account of me.

- blessed : (종교적, 문학적 언어로) 복 있는
- anyone who :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 stumble : 실족(失足)하다
- on account of : ~로 인해,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6절)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복이 있느니라.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식물로 못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청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미륵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옥(麻木)이라 하여 마비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고 하여 하늘 천(天) 마옥(麻)을 더하여 천마(天麻)라 불렀으며 예부터 정종초(正風草)라 불리기도 하였다. 정종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붓대같이 싹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7월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싹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싹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싹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싹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면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싹이 없어 발견하지 어려우므로 천문 인초종들은 그 장소를는 여기 바 꾸었다가 매달 씨를 뿌려 놓았다가 자연 메일을 보고 채취한다.

천마의 생애는 잎이 돋아나지 않고 붓대처럼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뿌리가 상장했을 시에는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기로로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를 나타낸다.

천마는 천마라 명칭하며, 줄기는 적전(赤前) 또는 정종초(正風草)라 부른다.

천마는 장나무 뿌리에 버섯처럼 균근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 모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상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麻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양이 서로 충돌하거나 풍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몸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어지럼이 일어난다. 이럴 때에 천마를 사용한다.

천마는 신경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 1SET + 1SET = 3SET
80m 60팩 80m 60팩 80m 60팩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직거래마케팅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천마를 생산하는 라파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17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모두 고객님들의 기도와 성원덕분입니다. 라파식품은 부산 본사의 제조생산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오직 국내 3년산 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저온 40시간 추출제조 공법으로 신제품 '홍천마진액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 제품보다 몇 배나 일등한 품질의 '홍천마진액골드'를 기존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그동안 홍천마(진액골드)를 복용하신 교역자님, 장로님, 성도님,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사신다는 체험담과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복용하고 목사님,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교역자님과 장로님 성도들의 간정에 의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품유통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신소비자 마케팅으로써 1set(한 달분 60포)를 구입하시면 2set을 선물로 더 드려서 총 3set(3개월분 180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유료수 값이며 결과는 감탄의 찬사입니다.

특별히 은퇴목사님, 장로님께서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천하를 알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식품법에 의하여 효능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음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홍천마를 통하여 더욱 건강을 지키시고 후기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다면 '홍천마'를 복용해 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거운 체험을 하십시오. 사람은 혈액순환만 잘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식품으로써는 홍천마가 순환기에 최고의 달관 식품입니다. 이는 질병이든 믿고시고 복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동의보감편에 보시면 특히 각종 암 · 중풍 · 고혈압 · 당뇨 · 만성두통 · 우울증 · 순환기질환에 홍천마가 탁월하다고 극찬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파식품은 이의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계좌 : 이주영

B.T.N 홍천마 라파식품 B.T.N

뇌 기능의 최적 운동은 하품과 믿음이다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뇌질환이다. 뇌질환에는 발달성 뇌질환과 퇴행성 뇌질환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발달성 뇌질환은 태아기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조현병, 뇌전증, 지적장애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흔히 신경성 발달장애라고 부른다. 중년기를 지나고 노년기에 들어서면 퇴행성 뇌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이다. 우리나라의 노년기 인구(65세 이상)가 2022년 914만 명인데, 치매 환자는 10%, 뇌졸중 환자는 5% 정도이다.

노년기가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기억력장애인데, 노인성건망증, 가성치매, 그리고 치매가 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70%)과 혈관성치매(20%)가 있고, 그 외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가 4%이며, 6%는 여러 종류로 나뉜다. 이토록 치매의 종류는 원인만큼 많아서 100여 종류가 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 부분의 세포가 노화 되어 죽게 되며, 기억장애가 생기게 된다. 건망증은 누구나 생기는 증상이지만 치매에 걸리면 어떤 힌트를 주어도 사실 전체를 기억 못하는 것이다. 치매의 전조증상은 50~60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 후에 후각 기능이 저하되는데, 원주 코에서 후각 상실이 나타나는 것은 좌측 해마가 퇴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수면을 길게 하거나 혀의 미세한 떨림 증상 등이 동반된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2024년이 되면 1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노년기(65세) 인구의 10%에 해당되는데, 85세가 되면 50%가 치매 환자가 된다. 치매의 발병률을 높이는 성인병이 큰 문제이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의 치매 발병률의 400%이고, 고지혈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의 200% 이상 치매 발병 위험이 높으며,

고혈압에 걸린 사람은 생존 기간 내 치매 발병이 확실하다. 거기에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 가능성은 더 높게 된다. 치매 예방 관리는 규칙적인 운동이 우선이다.

노년기에 흔한 퇴행성 질환의 두 번째는 혈관장애인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이다. 이는 노년기 인구의 5%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환자는 60만 명이다. 뇌졸중 증상은 심한 두통, 어지럼증, 손 전체 떨림 등이 오며,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왔으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한다.

뇌졸중을 진단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대표적으로 시야장애인데 뇌졸중에 걸리면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한쪽 눈으로 보면 앞이 시커멓게 보인다. 그리고 방향 감각, 균형감각이 상실되거나, 안면근육, 팔다리 저림 증상, 언어장애, 이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이 일어난 사람은 83%가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 증상이 5분 있다가 사라지더라도 이미 뇌졸중의 초기증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FAST(FAST)로 표기하는데, FAST의 F는 얼굴(Face), A는 팔(Arm), S는 스피치(Speech)이고, T는 병원에 갈 시간(Time)이다. 빨리 증상을 체크하려면 한번 웃어보면 안다. 웃는데 입꼬리가 비슷한 높기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한쪽 입꼬리는 처지는 등 입꼬리 균형이 잘 안 맞는다. 또 팔을 들어 보는데 한쪽 팔의 힘이 빠지거나 퍼지지 않는다. 또 단어나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했을 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어눌하다면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3시간 이내로 응급실로 가야 한다. 그래야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예전에 뇌졸중의 사망률이 25%로서 65세 이상 단일질환으로는 사망률이 제일 높았으나, 최근에 와서는 2위로 낮아졌다. “파는 생명이다.”(레 17:14)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NO(산화질소)가 생성되어야 혈관 건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도 역시 규칙적인 운동이다.

노년기 뇌질환의 세 번째는 운동장애로서,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1만 명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킨슨병은 5년,



하품을 주관하는 두정엽의 설정부 부위는 거울신경계와 연관되어, 하품을 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동정심,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각성과 수면 조절에도 관여한다. ©depositphotos



손매남 박사가 지난달 23일 경기 가평 좋은아침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상담개발원

10년 전부터 변비 증상이 오고 소변 장애도 온다. 그리고 후각 상실의 증상이 있어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 잘 안 된다. 또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이 오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실제 꿈속에서 한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 또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는데, 일어날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증상을 보이고 주 간(낮)에 졸림증이 자주 온다.

파킨슨병에는 운동증상과 비운동증상이 있는데 그 운동증상은 4가지이다. 곧진전증(떨림 증상), 경직증(근육-관절이 뻣뻣함), 서동증(동작이나 행동이 느림), 그리고 자세의 불균형(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평형을 잡기 어려움)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운동증상으로는 우울증, 환각, 연하곤란(삼키는 것이 어려움), 수면장애, 후각 기능 상실 등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을 예방하려면 무조건 운동이 최고이다.

노년기의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은 먼저 혈관 건강, 세포 건강, 수면 건강이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또한 운동이다. 뇌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을 비롯하여 호흡운동, 근육 이완, 명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탁구, 미소 짓는 일, 지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대화 등이 있으나, 소홀히 여기기 쉬운 하품과 믿음은 뇌 활동의 최적운동이다.

뇌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하품운동이다. 하품운동을 하면 두정엽의 설정부가 활성화되는데, 하품은 뇌의 신전대사와 체온을 조절해주고, 수행불안과 고혈압을 감소시킨다. 하품은 기억회상과 자발적 제어, 그리고 운동 조절의 필수기관인 시상하부와 해마에서

옥시토신을 활성화시키는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데, 아세틸콜린, GABA, 세로토닌, 글루탐산 등을 분비한다. 또 하품은 경각심과 집중력 자극, 스트레스를 낮추고 즐거움과 육체적 쾌락을 향상시키고, 공감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시킨다. 전반적인 근육을 조절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품을 주관하는 두정엽의 설정부 부위는 거울신경계(타인의 느낌과 행동에 공명을 받을 수 있는 곳)와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때문에 하품을 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동정심, 그리고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설정부를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도 각성과 수면 조절에도 관여하여 시차 영향을 막아주고, 심한 불면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하품은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하게 되는데, 영적 체험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노년기의 뇌 건강(퇴행성 뇌질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모든 형태의 운동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 뇌 손상과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된 뇌 신경 회로를 재건시킨다. 운동은 인지 및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운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뇌 조직의 손실을 늦추며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주기도 한다. 운동은 심장병을 호전시키고 여러 가지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BDNF(뇌유래 성장영양인자)를 분비시키며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해주어 우리의 수명까지 연장시킨다.

또한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믿음(Faith)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수감자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수감자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면 삶에 대한 불행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은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위약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짜 약을 진짜로 알고 약을 먹으면 대부분 신체 및 정서적 질병 중 평균 30%를 치료할 수 있다. 또 낙관적인 사람의 경우 전대상회가 크게 활성화

되는데 이는 불안, 우울, 분노를 조절하고 사회적 인식과 온정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앤드류 뉴버그 박사는 뇌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1위는 믿음(신앙, Faith)을 갖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벤슨 교수는 신앙(믿음)이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75%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25%는 의사나 약이 치료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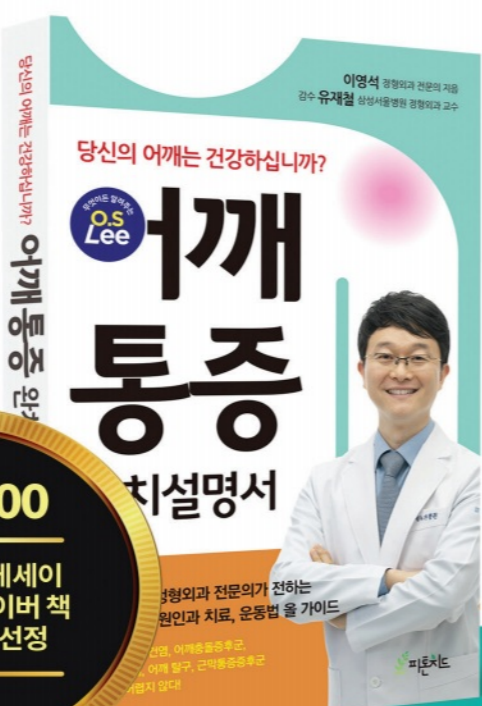
한편 미국 마이애미대학의 심리학과 정신병리의 교수인 아이언슨 박사는 HIV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는 환자를 4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면역체계가 훨씬 강력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가 밀집돼 높아졌고, 감염률 역시 3배나 더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환자의 경우 체내 T세포의 손실 속도가 3배나 더 빠르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또 감염률 역시 3배나 더 빨리 증가하고 스트레스 수치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치유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Exercise,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립하실 때에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뇌 건강을 위해 운동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관악대교구가 2023년 10월 23일 가평 좋은아침연수원에서 개최한 ‘2023년도 관악대교구 총무권사-지역장 세미나’ 가운데 손매남 박사 초청 강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쓰는 돈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모든 생물과 자연에는 그 나름대로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가스 사막/광야에 살고 있어서 삭막함 때문에 푸른 물과 숲을 보면 너무나 시원합니다. 반대로 맑은 물과 푸른 숲의 환경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사막의 삭막함을 경이로워합니다. 결국, 숲은 숲대로, 물은 물대로, 사막과 광야는 그것대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것은 다릅니다. 인공으로 세워진 아름다움에는 투자의 한 것 비례하는 미(美)가 있습니다. SNS에서 보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노라면 정말 탄복하게 되는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꾸며진 조경의 Layout과 함께 심겨진 나무며, 각종 시설물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이뤄내는 조화로운 미학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무르고 싶은 노

낌을 갖도록 해줍니다. 앞 뒷마당의 잔디를 드러내고 Desert Landscaping Layout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습니다. 보통은 카운티 보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실 공사비의 1/3-1/2 정도만 지급되기에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오히려 보조금을 남겨서 다른 공사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료 등도 저렴한 것들만 사용하고, 모든 것을 최소화하였기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좋은 정원, 아름다운 환경, 모두가 감탄할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러워 보이는 그런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결론인 셈입니다. 세상에 돈 없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썼다는 말입니다. 인공적인 조경에서는 돈을 쓴 만큼 아름답



답다는 공식이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이라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훈련이 없이는 고품격의 신앙 자태가 형성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신앙 자태를 유지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쉬운 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에 가까운 길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은 넓고 쉬운 길이 아닌 좁지만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분명히 '땀'을 지불해야 합니다. 땀없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조명이 비추지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격동의 찬양을 드립자라도, 교회 밖을 벗어나면 너무나 험사리 조금 전의 눈물과 감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마치 잡초와 외출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대로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면 투자를 하십시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요한계시록 10:1,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 10:11)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환난에서 일곱 대접 환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삽입된 내용으로, 흰색 천사가 손에 든 작은 책(성경)을 요한에게 주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경은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흰색 천사는 요한에게 "갓다 먹어 버리라(9절)"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환상으로 처음 보인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에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날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나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겔 3:1)"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살아가듯,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에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먹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책입니다(11절). 에스겔이 받은 예언과 요한이 받은 예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아먹은 두루마리는 입에 달기만 하였으나,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은,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씹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의 예언은 패역한 이스라엘이 비록 그 범죄로 인하여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회개하면 돌아주시겠다는 소망의 예언이지만, 요한의 예언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대 환난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참혹성을 앞으로써 고통을 겪어야 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고통도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을 때는 그 깨달음이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전할 때는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스피리츨드미션 제공

순수하고 착한 마음도 경쟁력이다

주말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일반인을 응시자로 선발한 후, 모의 취업 면접에 임하게 하여 그 잘잘못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과연 예리하고 매서운 질문을 쏟아내는 심사위원들은 마치 응시자를 마구타 삼아 갈갈이 찢어 해부하려는 것 같았다. 응시자들도 많이 단련된 듯, 마네킹 같은 자세에 경직된 예의를 갖추며 그들의 질문에 하나씩 응대했다.

요즘 입사전형에 업무 능력수행 평가를 위한 면접고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그 내용도 구술 영어, 논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아주 기발하거나,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질문들까지도 심심찮게 던져지고 있었다.

"예컨대, 상사가 기러기 아빠인데 그 상사가 가족이 없어 외롭다며 매일 저녁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분을 쌓겠습니다. 그런 후에 나의 사정을 설득하여 적당히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사생활까지 희생하며 상사로부터 예쁨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당신의 행동이 아부에 속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요?"

"....."
결국 이런 식이다. 술을 함께 마시겠다고 다

음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고, 안 마시겠다고 동료와의 팀워크를 깨뜨리는 것이냐며 공격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논리적 위기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지를 가능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도도 숨어 있었지만, 상황을 바꾸어서 실제로 그 심사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경우가 닥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해진다. 웬만한 '능구렁이'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적당히' 알아서 순간순간 대처할 수밖에 없으리라.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 무문을 하고 현답을 바라는지 모를 일이다.

또, 모든 상황에 낮은 응시자의 입장은 그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논리를 따지고 임기응변을 따지는 세상이지만, 약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 이런 면접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안으로 말하자면 며칠간 동료와의 합숙이나, 자유토론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응시자의 심성과 상황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이 커리큘럼을 통하여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려는 순수하고 착함을 평가 기준에 절대적으로 반영시켜내는 것이 오히려 그 기업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시대에 최우선적인 경쟁력으로 평가 받는 것이 외국어와 학력, 능력 등이려면, 그 가

치를 배가시켜 주는 것은 순수하고 착함이라고 본다. 1차(필기) 고사를 통과한 재원이라면 능력 등은 이미 검증받았을 터, 2차(면접) 고사는 잔머리 굴리는 정도를 채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경험담'이라든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잘했던 일'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그 반대의 질문 등이 그것이다. 응시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억지로라도 봉사활동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려 들지 않을까 싶다.

대답하기 애매모호한 질문만 쏟아놓고 안절부절 못 하는 응시자를 고소할 듯 쳐다보는 소위 이 시대의 '어른'들 아래 최첨단 기술을 외국에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차세대 직장인은 끊임없이 배출될 것이며, 죄의식 없이 횡령이나 급품수수 등을 자행하고 정치자금이나 갖다 바치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 어쩔 수 없는 최선으로 선택된다면, 착함과 순수는 차선의 경쟁력이나마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더 말이다.

이수종 / 한국기독교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계간 믹스앤매치 편집주간, 시인, 시조시인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O Jesu Christe a cappella motet for mixed voices)

이번 달부터 예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전성가를 매월 한 곡씩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전성가(classical sacred choir song)란 음악사적인 고전시대(Classical era)나 오래된 것의 의미가 아니고, 작곡된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예배에 성가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세상에 나온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이른 성가곡을 의미한다. 앞으로 음악사적인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를 넘나들며 고전성가를 소개하려 한다.



박장우 지휘자

곡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전에 예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배에 대한 원론적인 면을 재고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

예배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찬송, 기도, 헌물, 말씀. 앞의 세 가지 요소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하나님을 섬기는(service to God)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열린 예배란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시커 서비스(Seeker Service)라 한 것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다. 이를 직역하면 ‘구도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며, 이를 ‘구도자 예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즉 아직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집회라고 볼 수 있다. 예배자가 아니기에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관심이 있어서 와서 보고 알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듯 전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도집회’라고 하는 것이 옳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대인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배 찬송은, 특히 회중 찬송은, 한 마음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송의 예물이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음성이 될 수 있는 음향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적당한 울림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찬송하는 나의 목소리도 들리고 회중 전체의 찬송 소리도 한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음을 피해야 한다.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순수한 생소리(live voice)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파괴한다. 특히 마이크를 들고 찬송을 이끄는 리더를 두려면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 초기에 회중 찬송을 리더 없이 부를 수 없던 시절에는 리더가 필요했다. 지금도 새로운 찬송을 예배에서 부를 때는 필요하다.

그러나 회중의 찬송소리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지나치게 큰 소리는 안 된다. 리더의 스피커를 통해 나는 소리조차도 회중의 소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찬송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아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담은 찬양이다. 한 소절 한 소절 그 의미를 이해하며 진정된 영적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회

중 찬송은 회중 전체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예배요 소들과 함께 이 찬양의 예물을 아벨의 예배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설교자를 통해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고전성가 ‘오 예수 그리스도(O Jesu Christe a cappella motet for mixed voices)’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 베르켄(Jacobus van Berchem, ca. 1520-1580)이 작곡했다. 번역된 가사 전문은 이렇다:

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오! 주여, 은혜 주소서.

주님 나의 희망이신 주, 오! 주여, 오 나의 주님.

공활을 주소서. 공활을 주소서. 공활을 베푸소서. 내 주여!

가사의 내용은 공활을 베푸셔서 고통과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구세주)이신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이는 통상미사문의 (키리에)(Kyrie)와 유사하다. 예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그리고 예배의 공적인 성격(여럿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함)을 생각하면, 성가대의 찬양의 내용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나’보다는 ‘저희’가 적합하다. 그래서 ‘나’를 ‘저희’로 바꾸어 찬양하기 바란다.

예배에서 성가대의 찬양은 이 곡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성가대원들의 마음이 결코 회중을 향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회

중을 대표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회중도 마음으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예물을 드림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재 출판된 악보들은 현대식 악보로 누군가가 편집한(editing)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악보에는 마디줄이 없고 박자표가 아닌 비율사인을 가지고 있으며 기보법 또한 현대 기보법과는 다르다. 또한 현대판 악보에 있는 모든 악상기호들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 악상기호들은 현대 연주자를 위한 편집자의 제안이다. 지휘자는 가사 내용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표현할 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했다. 박자표와 세로줄에 의해 부여되는 규칙적인 강약은 없어야 한다. 단어와 문장의 내용이 잘 들릴 수 있게 아티큐레이션과 프레이징을 해야 한다.

당시에는 탁투스를 써서 지휘를 했다. 현대화된 악보에서 4/4박자로 표시된 이 곡은 지휘도형을 4박과 2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2박 도형을 사용하는 것이 곡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좋으며, 업 비팅(up-beating)을 사용하면 다운 비팅(down-beating)을 사용하는 것보다 쉽게 성가대를 지휘할 수 있다. 탁투스를 사용해서 지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곡은 장조나 단조의 조성 구조가 아닌 교회선법의 하나인 프리잔 선법 구조로 되어 있다. 템포는 대략 이분음표 = 60 정도에서 가사의 내용에 따라 조금 조정을 하면 되는데, 가사의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고 이해되는 템포를 설정한다.

마디 1-2에 있는 감탄사인 “오” 뒤는 짧고 그 다음 가사를 노래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다. 음악을 먼저 보지 말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음악은 가사의 메시지 전달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예배 음악은 그러해야 한다. 긴 음은 크레센도(crescendo) 하라. 이를 일반적으로 자연 크레센도(natural crescendo)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레센도 후 데크레센도(decrescendo)를 할 지 아니면 음음표의 연속을 계속 크레센도할 지는 메시지 전달력을 고려해서 지휘자가 결정하기 바란다. 마디 2-4에서 테너가 다른 세 성부의 가사를 메아리처럼 모방하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페르타타 표시는 늘임표로 해석하지 말고 숨표로 받아야 한다. 프레이즈 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자 한다면 약간의 늘임은 무방하다.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오! 주여, 은혜 주소서” 부분의 쌍을 이룬 모방 기법(paired imitation technique)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마디 10의 소프라노와 마디 11의 베이스 쌍, 마디 12의 테너와 마디 13의 알토 쌍, 그리고 마디 14의 소프라노와 마디 15의 베이스 쌍 그리고 마지막 마디 16의 테너와 마디 17의 소프라노 쌍의 연속적인 모방을 인식하고 전체를 점점 긴장도를 높여가며 연주하면 좋다.

◆박장우
총신대학교에서 지휘전공,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 목회음악 석사(M.Div. in C.M) 지휘전공으로 수학하고 도미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음악석사(M.M.)와 음악사/지휘를 복수전공하고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에서 음악 역사와 문헌 (Primary emphasis), 오케스트라 지휘 (Secondary emphasis)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최근 귀국하였다.

마디 21부터 시작되는 “주님만”에서 완전 5도 음정을 두 번 쌓는 것을 주의하라. 순차적으로 알토와 베이스가 ‘도’를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솔’을 소프라노, 테너가 ‘레’를 노래하며 두 번의 완전 5도 음정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주 예수님을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디 37부터 3/2 박자표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비율사인으로 쓰인 것이지만 현대적 박자표가 아니었다. 이전의 두 개의 이분음표의 음가와 3/2 사인 이후의 세 개의 이분음표의 음가가 같다는 표시이다. 이것을 현대적 박자표로 해석해서 연주하면 지나치게 느려지게 된다. 마지막 종지는 피카르디 3도를 사용한 피카르디 종지이다. 테너가 베이스 근음인 ‘미’ 위에서 ‘솔#’을 내어서 단조 분위기의 곡을 장 3화음으로 끝내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음색채를 재현하고자 한다면, 평균율로 조율된 피아노를 사용하지 말고 순정율적인 귀를 가지고 무반주로 연습하며 화음을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완전 음정을 배음 관계 안에서 제대로 울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리로 접근하지 말고 가사의 메시지를 찬양대원 모두가 이해하고 진정고 신령함으로 찬양함이 중요하다.

찬양인도자의 음악성 2: 찬양인도에서 음악성이 중요한 이유

찬양인도자에게 음악성이 중요하다는 언급에는 이견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문 해서 찬양인도에서도 음악성이 중요한 것일까요?

찬양인도사역 자체가 음악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찬양인도사역을 예배사역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채운성 교수

은 받은 맞고 받은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획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을 일컫는 것이지만 찬양인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팀사역을 호칭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 예배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배음악사역이라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이 무시

되거나 간과되는는 안 될 부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악은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음표나 음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태초에 오선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모두 인간들이 보고 연주하기 편하도록 만든 인간들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되고 진행되어 오선지가 되고 우리가 보는 음표와 음정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인도를 할 때 준비하는 곡들은 거의 오선지 위에 음표가 있는 곡입

니다. 그것이 그 곡을 쓰신 분께서 정해주신 약속이며 우리는 그 약속대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부르는 회중들도 하나님과 예배에 집중하여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은 그들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이 곡을 자신의 해석대로 불러서 회중을 헷갈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찬양인도자와 찬양팀은 회중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익숙한 곡이라면 다르겠지만 처음 보는 곡, 익숙하지 않은 곡을 부를 경우에는 더더욱 음악적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악적 완성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보를 통해 주신 찬양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악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도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의 열매가 되어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채운성
중앙대학교 성악과,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M.Div. in C.M)에서 예배인도 및 기획을 전공하였으며, 제2회 대학생복음성가 경연대회, 제4회 CCM대회에서 입상하였다. 현재 서울은현교회 예배 및 음악목사,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외래교수(예배인도, 예배기획)로 사역하면서 공동체적, 목양적 예배리더십을 통해 지역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서양화가 권순욱 작가, '2023 거리로 나온 예술' 개인전 진행 중

'아름다운 세상' 작품으로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아트센터 주최로 열리는 '2023 거리로 나온 예술'에 서양화가 권순욱 작가는 2023년 11월 6-17일 경기도 수원 누림센터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작가는 20대 젊은 청년 예술가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만 묵직한 마무리 채색으로 정감한 느낌을 준다.



권순욱 작가 개인전의 작품들. ©주최 측 제공



권순욱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 ©주최 측 제공

물 속 작은 이미지들은 평소 마음속 깊이 담았던 이야기 또는 희망사항이 진열되듯 구성되어 상상력의 깊이가 대담하다.

또한 작품명 '아름다운 세상' 시리즈로 창작활동을 하는 권순욱 작가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옆집에 사는 예술가' 프로젝트 동참한다. 참여자들이 작가의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림을 완성해 보는 오픈갤러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2023년 11월 20일과 11월 23일 성남시 서현동 소재의 권순욱 아틀리에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예술 체험으로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작업실에 방문하여 실제 작업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2023년 12월 11(월) ~ 12월 17(일)까지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작품으로 전시를 할 계획에 있다. 작가는 개인전 3회, 단체전 40여회로 2019 대한민국 현대조형미술대전 특상, 2020 한국창조미술대전 특상, 2021 한국예술문화대상 우수작가상, 2022 제4회 양태평당코리아 국제아트 페어 권순욱개인전 기업문화상 수상, 2023 제44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우수상 수상하여 성장하는 미술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진 기자

배우 조인성, 밀알복지재단에 아름다운예술인상 상금 기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배우 조인성으로부터 아름다운예술인상 상금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조인성이 수상한 '굿피플 예술인상' 상금으로 굿피플예술인상은 따뜻한 인품과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 당시 조인성은 "돈의 독을 빼면 복이 올 거라는 한 어른의 이야기에 저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부가,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다시 저에게 이런 큰 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이 상금은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은 조인성의 뜻에 따라 탄자니아 중부에 위치한 '신기다 뉴비전스쿨'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기다 뉴비전스쿨'은 과거 조인성의 기부금으로 완공된 학교로, 유치부 3개 학급과 초등부 5개 학급에서 총 46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신기다는 탄자니아 안에서 손꼽히는 빈곤 지역으로,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노동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으나 조인성의 기부로 지역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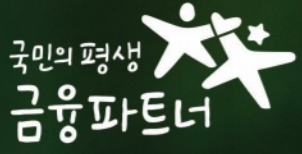
밀알복지재단은 배우 조인성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 사진은 2019년 탄자니아 신기다 뉴비전스쿨을 방문한 조인성의 모습. ©밀알복지재단

조인성은 2019년 신기다 뉴비전스쿨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테르미날리아' 나무 묘목을 운동장에 심기도 했다. 당시 조인성은 해당 묘목을 심은 것에 대해 "테르미날리아는 옆으로 크게 자라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라 들었다. 아이들에게 시원하고 편안한 쉼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 주고 있는 배우 조인성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조인성 님의 선행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사복음서 50 신앙예세이	40 할렘스토리 50 생명의 말씀-데일리큐데	00 생명의 삶 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0 TV 설교/강남성결교회 정인교 목사(벧어서 입노라! 30 TV 설교/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장영일 목사(이리준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서산성결교회 김향배 목사 30 주안찬 50 오늘 만나는 QT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교회)	10 할렘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2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한소망교회(유영모 목사)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년대학
	8:00	20 신앙예세이 30 워드바이블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리버미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 CBS성서학당-예수 비유 열두 고개 3강 - 김홍규 목사 "갈 수 없는 나라" (본문 - 록 16:19-31)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아주 특별한 찬양 50 할렘스토리	20 마커스워십 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디큐	0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40 김숙경 소정의 연애의 발견	10 새롭게 하소서	0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물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크리스탈순복음 정정자 목사	2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목사님 궁금해요 40 CBS 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오후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마라톤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구역의 세계로 (오심소)2 40 자스트 텐 미닛 (예수전도단) 50 내 삶에 신학 - 일터생활	00 율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할렘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역)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 설교/오병이교회 권영구 목사 3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물랐던 이야기 성지편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00 말씀의 생터 예신교회 김기남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20 다니엘 기도회	30 만나 워십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문방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3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00 TV 설교/[말씀의 힘]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15:00	40 7000마라톤	00 GOODTV 다크스페셜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송안교회 김정근 목사 30 TV 설교/빛나는교회 서학복 목사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16:00	10 신앙예세이 20 인생을 바꾸는 7번 - 예수가 길이다 30 생명의 말씀-이정원 원로목사/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말씀의 생터 소성교회 강복걸 목사 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카일 아이들만의 성령의 바람 50 [말씀] 김형의 목사(벤살롬교회)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34강 - 김기서 목사 "처벌과 새로운 출발" (본문 - 출 32:25-33:11)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이서 목사의 일러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한신)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저녁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신앙예세이 40 백세인생	00 비전설교 사넛가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 25 말씀의 생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더 메시지	1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30 TV 설교/산위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쓰디쓴 인생 달콤하게 하시는 성령님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30 말씀의 창 - 영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CTS 특선다큐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나침반 바이블 - 조병호 목사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 설교/[말씀의 힘]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현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역) 20 CGN 월드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내교회 황형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테렐레스타이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칼럼 40 할렘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예수 비유 열두 고개 3강 - 김홍규 목사 "갈 수 없는 나라" (본문 - 록 16:19-31)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사장님은 선교사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자스트 텐 미닛 (예수전도단) 20 크만추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3:00	00 워드바이블 3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GOODTV 특별간중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역)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THE 깊이 금강한 신앙, 물랐던 이야기 성지편 40 리버미션 워십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24:00	00 콜링갓 50 하나님의 숨결	00 예배실황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골짜기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선다큐	00 일대일 양육모임 30 스텔라네너 목사의 예수님의 생애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00 새내강단	
2:00	40 백세인생	00 명설교 충신교회 박중순 목사 30 명사들의 명강	20 [말씀] 이주원 목사(산마루교회)	30 TV 설교/본교회 조영진 목사	00 말씀의 창 -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크스페셜	00 [Global Sermon] John Piper's The Bible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율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중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0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24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과 요나 2"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50 힐링토크 회복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이 책을 읽고 뛰어노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고 큰 행복이죠'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 (52세)

오랫동안 출판업을 하면서
 제가 살던 고향에 책마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마침 중주부님이 세운 초등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소식에
 고민 없이 고향에 내려가 도서관을 짓기 시작했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주셨죠
 고맙다며 간식을 챙겨 주거나 책을 기증해 주셨고
 일손이 되어 힘을 더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 모여 만들어진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늘 감동이고 큰 행복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세번째 이야기 😊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드립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b KB금융그룹**